

예장(합동보수) 제13회 신임총회장 강대일 목사 추대

제1부총회장 정호석 목사, 제2부총회장 윤용섭 목사 당선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보수)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총회”라는 주제로 지난 9월 11일(화) 오후 1시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58길 소재 서울소망교회(증경총회장 서동기 목사)본당에서 제103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신임총회장 강대일 목사를 추대하고 신 임원 선출이 이루어진 가운데 새로운 회기를 위하여 안건을 처리한 가운데 마쳤다.

앞서 제1부 개회예배에 총회장이 이규필 목사의 진행으로 시작되어 제1부총회장 강대일 목사의 기도, 서기 임상국 목사의 성경봉독(시 37:4), 이규필 총회장은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제하의 말씀을 선포했다.



다. 총무 조영만 목사의 광고, 증경총회장 윤석철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2부 순서는 증경총회장 서동기



목사의 집례로 성찬식을 갖고, 제3부 총회장 이규필 목사의 사회로 임원택 목사가 기도한 후 회무처리는 절차에 따라 진행되면서 제103

회 신,임원이 선출되고 신규임원 교체와 상비부 조직 및 각부보고에 이어 신,안건이 처리되고 신임 총회장 강대일 목사의 폐회를 공포하



고 폐회예배를 드린 후 강대일 신임총회장의 축도로 마쳤다.

한편 총회신학대학 이사장 이규필 목사, 총회신학대학 총장 윤석철 목사(23대), 목회대학원장 증경총회장 서동기 목사, 교무처장 정호석 목사 등이 선임되었다.

제103회 합동보수 신임원은 다음과 같다.

총회장 강대일 목사(평안교회), 제1부총회장 정호석 목사(진주사철 목사(23대), 목회대학원장 증경총회장 서동기 목사, 교무처장 정호석 목사 등이 선임되었다.

사(사천대곡교회), 회의록서기 서대식 목사(풍성한교회), 부회의록서기 김주현 목사(빌라델비아교회), 회계 송인섭 장로(양문교회), 부회계 이점수 장로(천복교회), 총무 조영만 목사(시온교회) 등이다.

예장합동보수(망원) 제103회 총회장에 황덕광 목사 선출

신임부총회장 김평호 목사 당선, 총무 이영욱 목사 유임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보수망원)는 지난 9월 18일(화)오전 11시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 9길 소재 성락교회(황덕광 목사시무)에서 제103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신임총회장에 황덕광 목사를 추대했다.

정기총회에 앞서 1부 개회예배에 부총회장 김원주 목사의 인도로 시작되어 서기 김평호 목사의 기도, 회록서기 박명길 목사가 성경봉독



(신 10:12)하고, 성락교회 임마누엘 성가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며, 총회장 황덕광 목사는 “하나님의 요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이어 김영면 목사가 헌금기도를, 증경총회장 조은성 목사가 축사를, 총무 이영욱 목사가 광고한 후 증경총회장 황덕광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2부 성찬예식은 증경총회장 강정보 목사의 집례로 진행되었다. 오후 2시 3부 회무처리가 의장 황덕광 목사의 사회로 진행되어 서기 김평호 목사의 총대호명과 황의장의 개회선언으로 회무가 순서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임원선거에서 아래와 같이 선출되었다.

총회장 황덕광 목사(평서노회), 부총회장 김평호 목사(경기노회), 서기 최병수 목사(평서노회), 부서기 김영면 목사(중앙노회), 회록서기 김근주 목사(경기노회), 부회록서기 최 현 목사(영광교회), 회계 권춘식 목사(서울노회), 부회계 석홍열 목사(중앙노회), 총무 이영욱 목사(서울노회)등이 선출되었다.

제68주년 9.28 서울 수복 기념식

“다시 한 번 구국의 일념으로 일어서야 할 때”

미주에서 맥아더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 승리와 9.28 서울 수복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다.

제68주년을 맞는 이번 기념식은 28일 오전 10시 로스앤젤레스 미서부지회, 남가주 육군동지회, 월남참전동지회, 한병전우회, 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 대한민국역사 지키기운동본부의 공동주최로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 안보와 보훈의 의지를 다지며, 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및 9.28 서울수복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했다.

이날 영관장교연합회 미서부지

회 진재곤 회장은 “맥아더 장군은 대한민국을 전쟁의 포화 속에서 구한 영웅이다. 북괴의 6.26 남침 도발로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맥아더 장군이 이끄는 인천 상륙작전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의 운명은 공산치하에 놓였을 것이다”며 “지금의 대한민국의 경제적 풍요와 번영이 있기까지 도와 준 혈맹 미국의 은혜를 잊지 말 것이며, 촛불을 가장한 공산주의 세력에 의해 적화위기를 맞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다시 한번 구국의 일념으로 일어서야 할 때를 맞이하고 있다”고 메시지를

전했다.

역사본 김영구 회장은 “급기야 종북 정권으로 바뀌고 사악한 무리들이 맥아더 장군의 동상에 불을 지르며 엄청난 위해를 가한 작품의 시기에 지각이 있는 국민들은 분노와 참담함을 금치 못하고 있다. 5천만 대다수 국민들은 맥아더 장군의 희생정신과 영웅적 행동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영관장교연합회 김형호 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조남태 영관장교 전직 회장이 개회 선언하고 국민의례와 순국선열 및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에 이어 역사본 김평구 회장이 기도했다.

뒤를 이어 현화식과 진재곤 회장 인사말, 정정환 회장(월남참전 남가주지회)과 최만규 회장(남가주 육군동지회)이 축사를 전하고, “전우여 잘가라” 합창과 조선환 이사장(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의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됐다.

송금관 기자



스마트폰 QR코드로
지저스타임즈를
볼 수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보수) 제103회 신·임원 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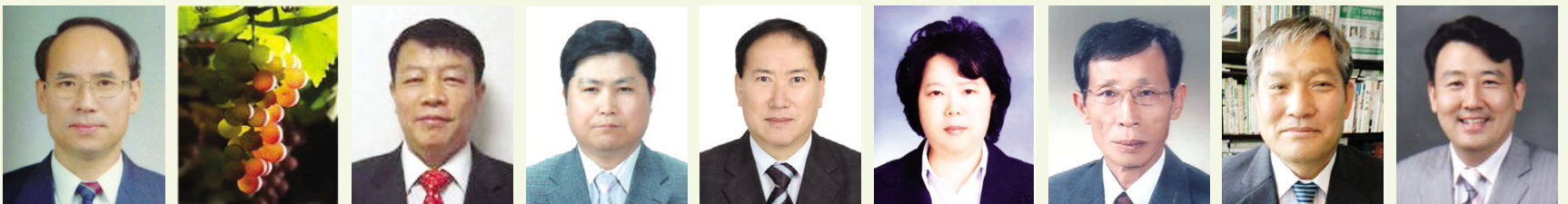
총신대 이사장 총신대 학장 총회장 목회대학원장



이규필 목사 윤석철 목사 강대일 목사 서동기 목사

주제「여호와를 기뻐하는 총회」(시 37:4)

제1부총회장 제2부총회장 서기 부서기 회의록서기 회의록부서기 회계 부회계 총무



정호석 목사(사랑의교회) 윤용섭 목사(한빛교회) 임상국 목사(천복복지교회) 주지광 목사(사천대곡교회) 서재식 목사(풍성한교회) 김주현 목사(빌라델비아교회) 송인섭 장로(양문교회) 이점수 장로(천복교회) 조영만 목사(시온교회)

합동보수교단은 뜻을 같이 할 교회와 기관, 교단 가입을 환영합니다.



총회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153길 94, (가산동 동천교회)
☎ H.P 010-7474-3173, 02)854-1326, FAX 496-0181

사단법인 예장합동보수연합선교회
이사장 이규필 목사

예장 개혁(개신) 총회, 총회장 박만수 목사 선출

지경을 크게 확장하는 총회' 주제로 열려

예장 개혁(개신) 제103회 총회가 18일~21일까지 미아소망교회(담임 장영환 목사)에서 열려 총회장에 박만수 목사를 선출하는 등 신임원선거와 개혁교단을 결집시키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지경을 크게 확장하는 총회"란 주제로 진행된 이번 총회는 신앙과 신학사상이 같은 교단과의 교류 및 영입에 주력하고, 동성애 및 차별금지법 반대운동은 이웃교단들과 연대 및 연합해서 벌여 나가기로 했다. 또한 작은교회 지원을 비롯한 교단의 정체성 및 위상강화에 노력하기로 했다. 신임총회장 박만수 목사는 "교단

의 변화와 개혁이 절실히 요구된다."면서 무엇보다 "헌법에 규정된 대로 처리하고 모든 총대들의 의견을 수렴해 총회를 이끌겠다"면서 "새로운 교단, 서로를 인정하면서, 미래를 향해 나가는 교단, 세계를 향해 끊임없이 선교하는 교단, 좌파 및 공공단체를 처결하는 교단, 윤리적으로 깨끗한 교단, 이단 및 사이비로부터 자유로운 교단을 만들어 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날 총무 선거에서는 조영식 목사

와 전상업 목사, 장태욱 목사가 치열한 접전을 벌인 끝에 2차 투표 끝에 120표를 얻은 전상업 목사가 선출됐다. 전상업 목사는 "성실히 맡은바 직무에 충성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선출된 임원은 ▲총회장 박만수 목사 ▲부총회장 조성환 목사, 이강욱 장로 ▲서기 최진기 목사 ▲부서기 박영남 목사 ▲회록서기 홍순태 목사 ▲부회록서기 오인권 목사 ▲회계 신기완 장로 ▲부회계 장종현 장로 ▲총무 전상업 목사 등이다.

예장정통총회 54주년 정기총회 개최

총회장 양정섭 목사 유임

대한예수교장로회 정통총회는 지난 9월17일 11시에 구로동 평안교회에서 총회장 양정섭 목사는 제54주년을 맞아 정기총회에 앞서 1부 개회예배, 2부 회무처리에서 새로운 임원선출로 한 회기를 이끌게 되었다. 상임총무 임정태 목사의 인도로 1부 예배가 시작되고 부총회장 이영춘 목사의 기도, 인도자의 성경

독(골1:7-8), 총회장 양정섭 목사는 "크리스천의 4대 신앙"의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양 총회장은 "그리스도인들이 진리의 빛과 십자가의 사랑의 열매, 성령의 바람, 죄인의 회개의 눈물" 등 네 가지



힘으로 살아갈 것'을 당부했다. 따라서 양 총회장은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에바브라에 게서 꼭 배워야 할 신앙으로 진실을 실천해야 한다. 진실과 참은 그리스도인의 생명과도 같다. 그렇기에 생각부터 진실해야 하고, 행실 또한 진실하게 생활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을 배워 실천한 에바브라처럼 우리도 진실하신 주님을 본받으며, 성령님의 인

예장고신, 제68회 신임총회장 김영복 목사 선출

신임부총회장 신수인 목사·서일권 장로 당선

예장고신측이 지난 11일 천안 고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강당에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히 12:14)라는 주제로 제68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총회 첫날, 임원선거가 진행돼 총회장에 김영복 목사(연산중앙교회), 부총회장에 신수인 목사(양산교회)와 서일권 장로(제5영도교회)가 각각 당선됐다. 부총회장 당선자들은 모두 단독후보였다. 이어 사무총장에 이영한 목사가 당선되고, 서기 정태진 목사, 부서기 정은석 목사, 회록서기 최성은 목사, 부회록서기 강영구 목사, 회계 김충무 장로, 부회계 황성진 장로가 각각 당선됐다. 이날 부회계 외에는 모두 단독후보였다.

신임총회장 김영복 목사는 "국가와 사회가 어수선하다. 어느 때보다 교회가 바른 목소리를 내야 할 시점에 교단의 중책을 맡게 되어 중압감과 부담을 느낀다"며 "하나님과 교단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으로 1년간 섬길 것"이라고 했다. 신임부총회장 신수인 목사는 "총회장의 뜻을 받들어 함께 총회를 섬길 것"이라며 "고신의 가운데서 고신인으로 살아온 은혜와 사랑을 미력이나마 총회를 섬김으로 보답하고자 한다. 선대들의 피와 눈물로



세우고 발전시킨 총회를 더욱 든든히 세우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 신임부총회장 서일권 장로는 "개인적 소신도 말하겠지만 공동체가 결정하면 그것에 순종하면서 연합의 정신으로 직을 감당할 것"이라며 "교단에 능력 있고 일을 잘 할 수 있는 장로님들이 많다. 그런 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최선을 다해 섬길 것"이라고 했다. 신임사무총장 이영한 목사는 "고신 교회가 질서 있게 서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총회에서 결정된 사안들을 잘 실행하고, 또 총회 직원들 및 사역자들이 더욱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고신총회 김영복 신임총회장은

지난 2015년 예장 고신-고려 통합 이후 지금까지 한 형태로서 매우 순탄하게 지내고 있지만, 경향교회가 아직 교단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것에 대해 언급하며 "총회장 임기 안에 경향교회가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김 총회장은 석원태 목사와의 차별한 인연이 있다고 한다. 따라서 예장순장 측과의 교단 통합 추진도 "서두르거나 임의적으로 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할 것"이라고 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내 '성평등 정책' 등 관련 독소조항에 대해서는 "동성애는 우연하게 포용할 문제가 아니라"며 "성경적으로 선언해야 할, 규범적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회와 타협할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성경의 진리를 선포하고 바른 소리를 내야 할 문제"라며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만 만드셨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예장한영, 제103회기 신임 총회장 신상철 목사 선임

부총회장 유재봉 목사, 김진수 장로 선출

대한예수교장로회(한영) 총회는 지난 17일~18일 이틀간 서울 시 구로구 경인로 290~42 서울한영대학교 본부동 대강당에서 총대 227명이 참석 "사람으로 연합하는 총회"라는 주제로 제103회기 성총회가 개최된 가운데 1부 개회예배, 2부 성찬식, 3부 회무처리 순으로 진행되어 신임총회장 신상철 목사를 추대했다. 이날 총회서기 이계신 목사의 인도로 1부 예배가 진행되고 경기남노회장 강성민 목사가 기도를, 총회장 김시홍 목사는 시 84:5~7절을 인용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따라서 회계 박영애 목사의 봉헌기도에 이어 2부 성찬식은 부총회장 신상철 목사의 집례로 시작되어 직전총회장 최규선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한영총회는 제103회기 회무처리가 회순에 따라 진행되고 임원선거 결과 총회장 신상철 목사(경기노회), 부총회장 유재봉 목사(동서울노회), 장로부총회장 김진수 장로(중부노회), 서기 이영열 목사(서울노회), 부서기 김정부 목사(경기남부노회) 회회록서기 전종규 목사(서경노회) 회회록부서기 김다은 목사(동서울노회), 회계 한미랑 목사(경기노회), 부회계 강계환 목사(부산노회) 총무 김명찬 목사(서울노회)이며 행정감사에는 정종원 목사(수도노회), 회계감사 김성섭 목사(경기남부노회) 등이 선출되었다.

이날 신임총회장 신상철 목사는 "총대들의 대의적인 헌신과 협력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총회장으로서 최선의 역량으로 총회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여 중점사업에 매진할 것을 취임사에서 밝혔다. 1. 총회의 실정에 맞는 규정을 보완하겠다. 2. 노회와 긴밀한 관계를 통해 총회와 노회의 발전에 힘쓰겠다. 3. 한국교회 연합사업에 적극 동참하여 총회의 위상을 세워 가겠다. 4. 각국, 각위원회의 운영 활성화를 통해 평신도사역에 도움이 되겠다. 5.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 독소조항이 포함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의 제정 반대와 올바른 개정을 위해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 6. 총회 교역자연합 체육대회를 통해 동역자의 동질성 향상으로 연합과 일치에 힘쓰겠다"고 했다.

예장중앙, 제49회기 이진호 목사 총회장 연임

헌법을 준행하는 임마누엘 성총회 주제로

선거 과정에서 일부 총대들이 자기들이 지지하는 총대가 후보 명단에 빠진 것에 불만을 표출하고, 에어콘, 엠프가 가동 되지 않는 상황에서 고성이가 오가고, 몸싸움을 벌였다.



을 능가하지 못한다. 대화로 모든 것을 풀어야 한다. (편집자주) 총회장 이진호 목사가 예레미야 13장 7-8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첫째로, 사람의 의지하는 자에 대한 경고와 하나님을 의지한 자에 대한 축복을 말씀하고 있다. 둘째로, 여호와는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옵신다고 말씀하고 있다. 셋째로, 여호와는 심정과 폐부를 시험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다"고 증거 했다.

예장중앙총회는 이어 성찬식과 제48회기 정기총회가 개최되고 특별보고를 비롯해 산적한 안건들이 진행되고 총회장 선거에서 이진호 목사가 총회장에 선임되었다. 이어 모든 미비한 사항은 신임 총회장에 게 위임하여 9월 19일(수) 제511차 최고 전권위원회에서 발표하고 다루기로 하였다. 안건토의에서 중요하게 결정한 것은 ▲제49회기 예산 협찬. ▲제49회 총회 운영 일정 ▲노회 신설, 분리, 통합합의 건을 결의하고 폐회했다.

지저스타임즈 www.JTNTV.kr 기독교인터넷방송

장기인행동 등록번호 : 서울다-07837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대표: 피종진 목사 이사장: 하정복 목사 사장: 소진우 목사 발행인: 장기남 목사

전국 24개 지사 / 해외 27개국 지사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지암로 176번길 32호 대운빌라 2층 202호 (고강본동 574-10, 대운빌라 2층 202호)
▶E-mail : jtpress@hanmail.net / jtnvcpj@naver.com
▶전화 : 전화: 032)574-6574, 팩스: 032)672-3031
▶H.P : 010-5468-6574
▶정성을 다한 후원금은 도시 농어촌 미자립교회와 해외지사에 신문을 보내는 선교사가 됩니다. 문서선교에 후원이사가 되어 주십시오.
▶1구와 후원금 10,000원부터~
▶1년 구독료 : 48,000원
▶후원계좌(예금주 : 정기남)
하나은행 758-910292-36807 / 농협 455030-56-005509

수도권지역 경기·여주 주택 · 대지 특별분양

전원주택단지 대지 주택 특별분양 이미 관심 속에 매매되고 있는 여주전원주택 은행대출 분양가의 70% 여주상수도개설, 전기, 통신(인터넷, 유선방송)지중화



대지특별분양(70,680,000원)

(임야 33㎡당 40만원, 약600㎡ 매매임)
현재 또는 2~3년 후에 건축가능 함
대지(330㎡+도로 46㎡) 합계 376㎡
3,3㎡당(62만원)376㎡=합계 70,680,000원



목조주택 특별분양

(2층 99㎡, 1억8500만원/청3, 화장실2, 거실, 다용도실)
(1층 72.6㎡, 1억 5500만원/청2, 화장실1, 거실, 다용도실)
주택 99㎡(1층 72.6㎡, 2층 26.4㎡)
대지 333㎡, 도로 46㎡ 합계 376㎡

교통환경

- ◆ 제2영동고속도로
- 제2영동고속도로
- 중부고속도로, 광주에서 서원주까지(56.95KM)
- 대신IC에서 전원주택 현장까지 2km(2-3분소요)
- 강남,분당에서 대신IC까지 45분소요)
- 천호동,구리시에서 대신IC까지 45분소요)
- ◆ 여주전철역(강남 분당에서 여주까지 11개역57km)
- 강남 분당에서 여주 전철역까지 45분
- 전원주택에서 여주시청,여주 전철역까지 12분
- 양평 전철역까지 차량20분
- (양평에서 전철로 청량리까지 50분)
- ◆ 제1영동고속도로까지 20km 15분
- 중부내륙고속도로까지 5km 5분소요

주소

경기도 여주시 대신면
초현리 312-4호(초현리산 48번지)

전원주택홍보전화

010-5468-6574
010-3478-6574
http://cpj.kr
http://jtnv.kr에서
팝업창 광고 진행 중

분양의
문의

02)8 5 4 - 1 3 5 5

예장진리총회 제103회 총회장에 장한국 목사 연임

대한예수교장로회(진리)총회가 지난 9월 21일(금) 오전 11시 경기도 의왕시 계원대학로 소재 주사랑교회 본당에서 제103회 총대과반수이상 참석한 가운데 총회가 개최되어 총회장에 장한국 목사를 재추대했다.

서기 박민규 목사의 인도로 1부 개회예배가 시작되어 회계 김정미 목사가 기도, 인도자가 성경봉독(계 1:3)을, 총회장 장한국 목사는 “참 복 있는 총회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한 후 총무 정요한 목사가 광고를, 장한국 총회장의 축도로 1부 개회예배를 마쳤다.

2부 성찬예식에 총무 정요한 목사가 집례를 맡고 김진환 목사, 유순옥 목사가 분별, 분전위원을 맡았으며 집례자의 축도로 마쳤다.



3부 회무처리에 들어가 의장 장한국 목사의 사회로 최순란 목사가 기도를, 서기 박민규 목사가 총대호명을 한 결과 과반수이상이어 의장은 개회를 선언하고 순서절차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임원선거에서 총대들은 장한국 목사를



제103회 총회장에 만장일치 추대했다. 이로서 총회장 장한국 목사는 지난해 이어 연임되었다.

총회장 장한국 목사(주사랑교회), 총무 정요한 목사(꿈의교회), 서기 박민규 목사(천성교회), 부

기 전상렬 목사(새예루살렘교회), 회의록서기 김진환 목사(주사랑교회), 부회의록서기 유순옥 목사(조예교정선교회), 회계 김정미 목사(새예루살렘교회), 부회계 김은임 목사(감사교회), 감사 박명자 목사(생명수교회) 등이다.

예장웨신 제103회 총회개최, 허창범 목사 총회장 연임

부총회장 박정균 목사, 정순옥 목사, 김행은 목사 선출

대한예수교장로회(웨신)총회는 지난 달 3일(월) 오전 11시 대전시 서구 갈마로 번성교회(박정균 목사)에서 제103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1부 예배를 드리고, 2부 성찬예식에 이어 3부 회무처리에 들어가 현 총회장 허창범 목사가 만장일치 유임되었다.

이날 제103회 정기총회에 앞서 부총회장 신인창 목사의 인도로 예배가 시작되어 서기 박정균 목사가 기도를, (성경봉독 마 7:15~20)부회계 최두리 목사, 은혜로운 특송에 윤석희 목사, 총회장 허창범 목사는 “열매 맺는 웨신총회가 되자”는 제하의 말씀을 선포했다.

허 총회장은 “하나님께서 18년 전에 웨신총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택하여 세우신 목적은 열매 맺는 데 있다면서 웨신총회는 열매 맺



는 사역자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데 교단이 될 것을 주둔하고, 또한 빛이 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역할과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노아, 아브라함, 욥과 다윗처럼, 히스기야, 바울, 빌레몬과

같은 인물들처럼 열매 맺는 사역자들이 되자고 했다. 이어 직전총회장 이영풍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이윽고 2부 성찬식, 3부 회무처리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날 남부노회 노회장 김만홍 목사, 서기 노진환 목사, 서경노회 노회장 고영진 목사, 서기 홍효열 목사, 중앙노회 노회장 지요한 목사, 서기 윤대수 목사 등 3개 노회가 가입하락되었다.

제103회 웨신총회 신입임원은 총회장 허창범 목사(호남/푸른솔교회) 신입 부총회장 박정균 목사(호남/번성교회), 정순옥 목사(연합/미래선교회), 김행은 목사(호남/광주암곡교회), 신임총무 이준영 목사(경천/낙타방송), 서기 성용구 목사(경천/송석교회), 부서기 조영신 목사(영남/시온산교회),

회의록서기 지요한 목사(중앙/홍해영교회), 부회의록서기 최선녀 목사(한성/소망교회), 회계 마순덕 목사(호남/사랑하는교회), 부회계 최정수 목사(웨신대/일상교회) 등이다.

성순희 기자 cpj01@naver.com



사단법인 한국기독교보수교단협의회(대표회장 한홍교 목사)는 지난 9월11일 오전11시, 서울 종로 5가 여전도회관 14층 2강의실에서 1부 예배, 2부 제14회 신학세미나를 개최되어 참석자들이 많은 도전을 받고 돌아갔다.

예장합동연합 총무 장사광 목사(위 사진)의 예배인도로 예장 합동

예장(합동연합)총회, 제103회기 정기총회 개최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연합)총회는 지난 17일(월) 오전11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람동 소재 분당예광교회(담임 최남규 목사)에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주제로 제103회 정기총회가 경건하게 개최됐다.

서기 이희철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개회예배는 국가안보 및 교단부흥을 위하여 송학순 목사(경서노회장), 남북통일과 선교를 위하여 고아라 목사(호평노회장), 예배를 위하여 추원식 목사(세계선교회), 윤옥희 목사의 성경봉독(행28:30-31), 윤희규 목사(평화노회장)의 특송, 총회장 최남규 목사의 봉헌기도, 총무 장사광 목사의 광고 후 최남규 목사(경서교회)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최남규 총회장은 “지금 기독교는 동성애 합법화문제, 종교인 과세문제, 이단문제, 이슬람교가 밀려오는 문제 등, 심각하다면서 지금은



기도할 때”라고 말했다.

또한 최 총회장은 사도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선교사 파송을 1차,2차,3차로 파송하고 세계선교를 위하여 기도했으며, 찾아오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 말씀을 전파하고, 사람 있는 곳은 찾아가서 말씀을 전했다는 이는 모두가 복음전하는 데에 중요한 요소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오직 우리들의 중심(영)을 보신다면서, 기독교인은 믿을 없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전부이다”고 했다. 이어 설교자의 기도 후, 회계 김종본 목사의 봉헌기도, 총무 장사광 목사의 광고 후 최남규 목사(경서교회)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2부 성찬식은 (전 부총회장) 김동순 목사의 인도로 기도예배를 인도한 김동순 목사(세계선교회)를 비롯해, 장사광 목사는 요6:46-51절을

중심으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란 제목으로 설교 했다. 이어 분별 주찬순 목사(경기노회) 분전 조창순 목사(경기노회)가 맡았으며 집례자의 축도로 마쳤다.

3부는 의장 최남규 목사 사회로 회무처리에 들어가 회원점명, 개회선언, 절차보고, 회의록낭독, 지시 및 흡석사찰, 회계감사보고, 회계보고, 안전토의, 기타토의의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폐회예배는 세계선교회 추원식 목사 사회로 이희철 목사(경상노회장)가 출 15:22-26)절을 인용 “마라의 기적”란 제목으로 설교하고 총회장 최남규 목사의 축도 후 폐회선언으로 제103회기 성총회가 은혜롭게 성료됐다.

예장합동연합 103회기 임원 총회장 최남규 목사, 총무 장사광 목사, 서기 이희철 목사, 회의록서기 추원식 목사, 회계 김종본 목사 등이,

사)한기보협. 제14회 신학세미나 가져

『기도로 나라를 바로 세우자』

제일총회 김 건 목사의 대표기도, 기독교대한자유감리회 강성은 목사의 성경봉독(마22:1-14), 문화예술위원회 찬양단의 특송에 이어 제일순교교회장 박승주 목사는 “주 안에서”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이재몽 장로의 봉헌찬양(색스폰연주), OBC총회장 문순자 목사의 봉헌기도, 대표회장 한홍교 목사의 인사의 말씀, 사무총장 김준희 목사의 광고 후 성경총회장 김승현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2부 신학위원장 김주상 목사의 사회로 열린 세미나는 예영수 박사, 홍세준 박사가 강사로 나섰으며, 사)한기보협 대표회장 한홍교



목사의 인사말씀에 이어 예영수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이날 예영수 박사는 한국목양문화상 수상자 서인 “세계명작 101스토리와 성경의 만남”의 저자 이다. 그는 명작스토리를 성경과 연계하여 강의하고, 종교인(목회자)과세에 대한 제2

강의를 맡은 홍세준 박사는 요즘 교계에서 이슈와 된 처음 ‘종교과세’에서 대해서 했으며 목회자들은 이구동성으로 공급했던 세무에 관해 이구동성으로 유익한 세미나에 감사한다며 인사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진리)총회 제103회 · 임원 환영

주제 :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계 1:3절)

총회장



장한국 목사
(주사랑교회)



박민규 목사
(천성교회)



전상렬 목사
(새예루살렘교회)



김진환 목사
(주사랑교회)



유순옥 목사
(조예교정선교회)



김정미 목사
(새예루살렘교회)



김은임 목사
(감사교회)



정요한 목사
(꿈의교회)



박명자 목사
(생명수교회)



본 교단은 뜻을 같이할 개 교회 및 노회와 총회의 영입을 환영합니다.



총회사무실 / 경기도 의왕시 계원대학로10, 7층 대림프라자 고호5,(내손동) Tel 031)424-7612
총회장 : 장한국 목사 H.P 010-4436-7060, 서기 : 박민규 목사 H.P 010-9621-9627

■ 靑松 건강칼럼 (658) ‘보약’ 걷기

‘만병통치약’ 걷기운동



靑松 박명운 박사
보건학박사
한국보건경영연구소 이사장

걷기는 우리 몸에 완벽한 운동이므로 돈 안 드는 ‘만병통치약’이라고 할 수 있다. 영국 국립심장포럼은 하루 30분 이상, 주 5일 이상 걸으면 심장마비(心臟痙攣)의 위험성을 37% 낮출 수 있다고 발표했다. 독일 자를란트 대학 연구팀도 하루 25분 정도 걸으면 심장

과 폐가 튼튼해져 최장 7년을 더 오래 살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걷기는 심폐기능을 향상시키고 혈액 순환을 촉진해 심장질환을 예방한다. 또한 걷기운동은 체지방이 분해되고 혈당이 떨어지므로 체중감량과 성인병 예방효과도 있다. 걷기 동작은 뼈를 자극해 골밀도를 유지하고 관절 노화를 늦추므로 골다공증(骨多孔症) 예방에도 좋다. 하체 근육을 강화시키고 인대와 힘줄도 튼튼하게 한다. 심폐한 환경에서 걸으면 뇌에서 안정감을 느끼게 하는 알파파가 많이 발생하고 행복감을 주는 엔도르핀이 분비되어 정신 건강에도 좋다.

걷기는 몸과 마음을 고루 건강하게 해주는 간편하고도 손쉬운 운동이다. 즉, 걷기는 우리 몸을 이동시키는 단순한 동작으로 보이지만, 걷는 과정에서 관절, 뼈, 근육 등이 조화롭게 움직인다. 요즘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걷기 운동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다. 걸으면 무조건 건강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걷기도 ‘제대로’ 걸어야 운동 효과를 볼 수 있다.

사람들은 대부분 팔자(八字)걸음을 걷고 있다. 팔은 거의 흔들지 않고 발을 디딜 때는 발바닥 전체가 동시에 바닥에 닿도록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걸으면 뒷다리 무릎이 굽어지면서 관절에 충격이 가게 된다. 이에 잘 걸으려면 전방으로의 무게중심을 이동하고, 뒷다리의 무릎을 곧게 펴고 양팔을 몸 앞뒤로 흔들어야 한다. 발바닥에서의 체중(體重) 이동은 뒤꿈치, 발바닥, 발가락 순으로 ‘삼단보행’을 하여야 한다. 이 동작들을 걸음걸이에 접목하면 전신운동이 된다.

걷기를 통해 건강을 챙기고 싶으면 보폭(步幅)을 현재보다 5cm정도 늘려 걷는 것이 좋다. 보행속도는 성인은 평균(시속 4km)보다 조금 빠른 시속(4.5km)가 적당하며, 그래야 걸을 때 올바른 자세가 유지될 수 있다. 시속 4km는 성인남성 평균 보폭(70cm)으로 1분당 95걸음을 걷는 수준이다.

오르막길을 걸을 때는 근력 소모를

를 실시한다. 2단계 실행기는 걷기 준비운동을 2주 정도 한 뒤부터 ‘인터벌 걷기’를 시작한다. <인터벌(interval) 걷기>란 걷기의 강도에 변화를 주며 걷는 것으로 3분은 평상시 속도로 걷고, 3분은 전신에 힘을 줘 빠르게 걷는 것으로 6분을 한 세트로 5번 반복해서 30분간 걷는 방법을 말한다. 근육의 수축과 이완이 빠르게 이뤄져 전신에 혈액이 잘 공급되고 심폐기능도 올라간다. 평지에서 걷고, 호흡은 자연스럽게 한다.

3단계 강화기는 인터벌 걷기를 6-8주 하여 익숙해지면 기구를 이용한 <근력(筋力)운동>을 병행해야 한다. 근육량이 늘고, 근육 기능이 향상돼 걷는 속도를 더 높일 수 있다. 근력운동은 탄력 밴드를 목에 걸고 밴드 양 끝을 발로 밟은 다음, 상체를 서서히 쾅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동작을 10-15회씩 3세트를 하면 좋다. 근력운동을 하면 코어 근육과 하체 근육이 동시에 단련된다.

바쁜 현대인들은 하루 동안 걸은 거리나 에너지 소비량 등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어렵다. 이럴 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활용하도록 한다. 내려받기 한번으로 코칭스태프 같은 든든한 조력자가 생기고 덤으로 기부, 캐시 적립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예를 들면, ‘날리리 만보’는 일상 속 걸음을 모으면 원하는 도시로 여행할 기회를 제공하는 앱이며, ‘개시워크’는 걸으면 걸을수록 돈이 생기는 요술 방법이 같은 앱이다. ‘워크온’은 건강도 챙기고 기부도 할 수 있는 앱이다.

걷기운동은 두발에서 시작되므로 많이 걸을수록 발에 무리가 간다. 따라서 충분히 걷는 후에는 발의 피로를 풀어주는 시간이 필요하다. 대야에 따뜻한 물로 족욕(足浴)을 하면 발이 한결 가벼워진다. 물의 온도는 섭씨 43-47도 정도로 복사빠가 잠길 정도가 적당하다. 10-15분 정도 족욕을 하면 혈액순환과 뭉친 근육을 푸는 데 도움이 된다.

족욕을 마친 후에 물기를 닦아낸 발에 로션을 바르고 양말을 신거나 담요로 발을 덮어 온기를 유지한다. 따뜻한 물 또는 차를 마셔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좋다. 발을 시원하게 하는 데 마사지가 좋다. 발마사지는 발에서부터 심장 방향으로 한다. 먼저 발가락을 골고루 마사지하고 발가락 사이를 지그시 눌러준다. 발뒤꿈치부터 발가락까지 부드럽게 문지르다가 꼭꼭 눌러 자극을 한다. 발바닥의 가운데 가장 오목한 부분인湧泉穴(湧泉穴)도 마사지하면 시원하다.

건강관리를 위하여 ‘걷기’ 행사에

참여하도록 한다. 9월 30일 일요일에는 ‘서울 걷·자 페스티벌’이 서울 도심대로에서 열린다. 서울시와 조선일보 공동주최로 서울 광화문에서 한강까지 도심 도로를 두 발로 누비는 ‘걷기 코스’는 오전 8시 광화문광장을 출발하여 남산3호터널과 잠수교를 지나 반포한강공원에 도착하는 7.6km 구간이다.

올해 88서울올림픽 30주년을 맞아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대한민국의 국제사회 도약 계기가 된 서울올림픽 의미를 되새기는 차원에서 다채로운 축하행사(걷기대회, 마라톤대회, 학술대회, 30주년 특별전 등)를 진행하고 있다. 국민걷기대회는 9월 15일(토요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을 중심으로 5km 걷기를 실시했다.

서울올림픽 개·폐막식과 육상 종목 경기가 열린 ‘88올림픽의 성지’ 서울 잠실종합운동장에서 관광 및 체험 프로그램이 9월 17일부터 11월 9일까지 열리고 있다.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주경기장 트랙(track)을 걸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다.

1988년 한국의 서울에서 개최된 제24회 올림픽경기대회(Olympic Games)는 9월 17일부터 10월 2일까지 16일간에 걸쳐 서울을 비롯한 주요도시에서 개최되었다. 전 세계에서 159개국 1만3304명의 선수단(선수 8,391명)이 참가하여 올림픽 사상 최대 대회규모를 기록했다. 종합 메달 순위는 1위 소련, 2위 동독, 3위 미국, 한국은 4위(금메달 12개, 은 10개, 동 11개)를 획득했다.

최근에 ‘천주교 서울 순례(巡禮)길’이 아시아 최초로 교황청(敎皇廳)이 공식 승인하는 국제 순례지로 9월 14일 선포되었다. 교황청에서 한국 천주교 박해 및 순교 역사를 고스란히 담았다는 점을 인정해 승인했다. 즉, 서울 순례길은 초기 천주교 신자들의 처형장, 옛 천주교 신학교 자리 등 순례지 24곳을 잇는 길로 총 44.1km에 달한다. 서울 순례길은 말씀의 길(8.7km), 생명의 길(5.9km), 일치의 길(29.5km) 세 구간으로 나뉜다.

서울 ‘경의선(京義線)금길’은 마포구 연남동에서 용산구 원효로까지 2005년에 지하화된 철길을 따라 지상에 조성된 공원으로 총 6.3km에 이른다. 철길에 따라 소나무, 은행나무, 단풍나무, 버드나무, 메타세콰이어(metasequoia), 뽕나무 등이 뿔뿔하게 늘어서 있다. 필자가 거주하는 마포구의 홍대(弘大)입구역 3번 출구에서 홍제천이 있는 가좌역까지 1.3km 숲길이 전체 구간에서 가장 붐비는 구간이다. 일주일에 5일 이상 규칙적으로 걷기운동을 하자!

헤로인 중독성 마약이란?



홍성선 목사
(마약정보학박사
NGO세계기독청 설립이사장)

국제공인 국제마약퇴치 아카데미, 법인 국제마약정보교육원(마약정보학박사 홍성선 교수)은 본지에 연재하게 되었다. 헤로인은 중독성이 강한 불법 마약으로서 파괴에서 얻은 몰핀에서 추출하여 만들며 쓴 맛이 나는 흰색 가루이지만 길거리에서 판매되는 헤로인은 여러 가지가 함유되어 있어 흰색부터 짙은 갈색까지 다양한 색을 가지고 있다. 멕시코에서만 제조되는“Black Tar”라 불리는 타르 형태의 약물은 미서부 지역에서 구할 수 있는데 짙은 갈색에서 검은색까지 다양한 색을 가진다. 일부 불법 제조실에서는 헤로인과 비슷한 효과를 내는 가짜 헤로인을 만들어 팔기도 하는데 생명을 위협 할 수 있는 많은 화학품이 포함되어 있는 이런 제품들은 위험하다.

사용법 : 1. 흡연(smoking) 2. 코로 흡입(snorting) 3. 주사기 사용(injecting)4. 입으로 삼킬(swallowing) 은어(다른 이름) Aip, Aunt, Hazel, Big H, Balloon

Beast, Blacktar, Blanco, Brown Sugar, China Car, Dog, Dope, Horse, Junk, Mud, Nurse, Polvo, Rider, Skag, Smack, Spoon, Tar, Z

증상 : 도취감, 현기증, 비정상적 사고, 호흡수 감소, 동공 수축, 메스꺼움, 가쁜호흡, 식욕부진, 경련, 무의식 상태, 급단 증상 : 약물갈급증, 휴식부족증, 근육 혹은 뼈의 통증, 불면증, 설사, 구토증, 고열, 한기증, 소화불량, 우울증 장기적영향 : 가장 위험한 영향으로 중독성을 들 수 있다. 육체적 파괴 뿐 아니라 생활 패턴 자체가 바뀌게 되며 경제적 부담도 크게 된다. 헤로인 사용자들이 하루 평균 사용하는 비용은 120불에서 이르기 때문이다. 또한 과용했을 경우 응급실에서 호흡기를 사용해야 숨을 쉴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한번 가용으로도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감염 : 약물 자체의 영향 외에 주사 바늘을 같이 사용함으로 야기되는 HIV나 간염 B, C, 그 외의 전염성 질병의 감염도 크게 우려된다. 중독 : 헤로인은 뇌로 흡수되는 속도가 빠를뿐 아니라 육체의 의존증(dependence)을 관할하는 부분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중독성이 매우 높은 마약 중 하나이다. 의존증(dependence)과 양을 계속 늘려야만 하는 증상(tolerance)으로 인해 중독이 되게 된다.

DEA 역사

DEA는 미국 법무부에 소속되어 있던 마약, 위험 약품국 및 마약단속국, 기타 다른 마약관련 연방기관들이 통합되어 1973년에 창설, DEA를 대표하는 청장은 미국 대통령이 지명하여 미국 상원의 재가를 얻어 임명하며 청장 밑으로 부청장, 작전국장, 감시국장, 정보국장 그리고 작전지원 및 인력자원을 관장하는 청장보통을 중심으로 주요 기구가 구성되어 있다. DEA의 본부는 버지니아주 알링턴에 위치, 자체의 훈련원을 버지니아주 관티코 미 해병대내에 위치하며 미국 21개 지역에 227지부 사무실이 있고 해외에는 63개국에 87개 지국을 두고 있다. 연총예산은 2,3455백만달러(약2조3천억원), 5,000명이 넘는 Special Agent를 포함, 11,000명이 넘는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DEA 임무

마약 거래상 및 마약조직을 수사하여 범정에 세우기 위함이며, 마약 및 원료물질 등이 미국 내 또는 전 세계에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다음에 계속>

대한예수교 장로회 행복샘교회

표어 : 좋은남행복만성도(신 33:29절)



강사 박수영 목사

- 한국여목성학술원장 원장
- 지저스타임즈 대구지사장
- 경북대학교병원교회원목위원
- 행복샘전인치유센터 원장
- 동부노회 노회장
- 행복샘교회 담임목사

집회 고침받은 내용

- ☆ 최병욱 : 심장병으로 숨막히고 쥐어짜는 고통에서 고침받음
- ☆ 류정호 : 만성변비로 가야기독대학병원에서 퇴원 장례준비중 고침
- ☆ 김소영 : 류머티즘관절 평생지병 집회중 선포 기도도 고침받음
- ☆ 남영수 : 재생불량성빈혈 경대병원 매주 수혈받으며 투병하다 고침
- ☆ 김영자 : 만성두통과 불면증으로 10년 동안 고생하다 고침 받음
- ☆ 박수영 : 30년동안 피부병으로 고통받다 치료받은 이것이 나의간증
- ☆ 강복희 : 뇌경색으로 왼쪽 전신 마비되어 투병하다 집회중 고침받음
- ☆ 김복자 : 고혈압 20년 지병 정상으로 고침 받음

예배시간안내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수요기도예배 오후 7:00
주일오후예배 오후 2:00	금요치유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예배 오전 9:00	새벽 기도회 오전 5:00
청소년부예배 오후 2:00	중보기도모임 매일 8:00

대구시 동구 송로로 16길 11(신현동)
동대구 반도유보라 상가(2층)



꾸미오리기독무용신학
신입생모집요강



김창숙 목사

◆ 꾸미오리기독무용신학은
세계로신학학술원과 학점교류를 통해 세계로신학술원
학장명의로 졸업장 수여함.

◆ 과정수로 후 세계로신학학술원을 통해
연장수업으로(USA)Cumberland University 학위 취득이 가능함.

과정 : 찬양, 율동, 위집, 한국무용
수업요일 : 매주 월, 수, 금

장소 : 꾸미오리선교센터(경기도 양주시 고암동182-3)
문의 : H.P 010-4137-0796 (김창숙 목사)



세계로신학학술원 · 꾸미오리기독무용신학

대한예수교 장로회 삼성중앙교회

표어 :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음이라



당회장 정대성 목사

2018 동여
성장하는교회
부흥하는교회

예/배/시/간/안/내

- 매일새벽예배 : 새벽 5:30
- 주일 낮 예배 : 오전 11:00
- 주일찬양예배 : 오후 2:00
- 저녁 기도회 : 매일 오후 8:00
- 토요직분자교육 : 오후 7:00
- 청년 / 학생부 : 통합예배
- 수요 예배 : 오후 7:30
- 금요철야예배 : 금요일 오후 7:30

경기도 김포시 운곡로9번길 15, (장기동 131) ☎ 010-6418-3468

절이 변하여 교회가 된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날마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교회 Come & See



담임목사 김창룡



상담목사 박영미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관항길242번길75
전화: 010-7172-0675, 011-204-6795
팩스: 031-366-2235 홈페이지: www.gdfc.kr

• **계시록 6장 강해(41)**

흰말탄 자는 환란 때 하나님의 종 144000 곧 두 증인

붉은 말 탄 자가 받은 큰 칼은 거짓 선지자가 받은 권세

〈지난호 이어서...〉

적그리스도와 마귀는 흰색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붉은 용으로, 적그리스도는 붉은 색 · 자주색 · 주홍색으로, 적그리스도에 게 넘어간 음녀는 자주색으로 표현했듯이 적그리스도와 마귀는 붉은 색 계통으로 표현합니다. 계시록에서 흰색은 순교하는 자에게 흰 옷을 입혀준다고 하였듯이 거룩하고 순결한 자, 그래서 목숨을 초개같이 버릴 수 있는 신앙에 올라선 자가 흰색과 관계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흰말 탄 자는 적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 악한 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흰말 탄 자는 환란 날에 하나님의 종 십사만 사천 명, 곧 두 증인을 가리킵니다. 그 근거는 흰말 탄 자들이 면류관(헬: 스테파노스)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면류관(헬: 스테파노스)은 성도나 하나님의 종들이 믿음으로 이겨서 받는 것입니다. 흰말 탄 자는 일반 성도는 아니고 하나님의 종들인데 은혜시대의 종이나 환란 날에 사역하는 두 증인을 가리킵니다.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예언한다는 계시록 11장의 말씀이, 곧 계시록 6장에 어린양이 첫째 인을 땔 때 환란이 시작되면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흰말 탄 자를 해석해 주는 것입니다. 두 증인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장을 받은 십사만 사천 명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쓰고 있는 것은 면류관(헬: 스테파노스)이 아니라 왕관(헬: 디아데마)입니다. 그가 7년 환란 동안 왕으로 통치하는 것입니다. 흰말 탄 자가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더라.' 했는데 적그리스도는 이기고 또 이기는 것이 없습니다. 이기는 듯하다가 멸망으로 끝납니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계시록 19장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제일 먼저 지옥으로 들어가는 자들입니다.

위와 같이 흰말 탄 자의 정체가 적그리스도가 될 수 없음을 확실히 밝히고 있는 본인은 신학자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로부터 선지자로서, 예언자로서 보증을 받았기에 이렇게 미리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흰말 탄 자가 활을 가졌더라 - 활은 사 49:1-3에 하나님의 종을 마귀한 화살같이 잘 갈고 닦아서 화살 통에 넣어둔 것같이 하나님의 손 그늘에 숨겼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 화살을 꺼내서 사용하시는 것이 '너희들이 왕 앞에 서고 빛을 발하리라'입니다. 창세기 49장에 요셉을 활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요셉의 활이 건강하여 그의 형제들보다 낫다고 했고, 음을 활이라고 했습니다(욥 29:20).

흰말 탄 자, 즉 두 증인이 가진 활이 같은 맥입니다. 활은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을 말씀합니다. 흰말 탄 자는 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환란을 주셨

는지, 또 환란 중에 악한 자를 세워서 성도들로 하여금 고난 받게 하시는지를 깨닫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을 받아 가진 것입니다. 흰말 탄 자, 곧 십사만 사천 명의 두 증인들이 그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으로 예언하여 믿을 있는 자는 믿음대로 온전케 하여 순교의 길로 들어가게 하고, 또 믿음을 없고 배도될 자들을 살리고 세워서 예비처로 가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 활을 받아서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는 역사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의 활을 쏘아서 상대방속의 악령을 잡아먹듯 소멸시키고 녹여버리는 것입니다.

3절 어린 양이 둘째 봉인을 여섯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기를 “와서 보라.” 하더라. 어린양이 인을 떼어야 시작되는 것입니다. 둘째 생물이 “와서 보라”하고 말합니다.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은 생물입니다. 송아지는 마 22:4에 왕이 잔치자리에 준비한 살진 송아지를 계시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잔치를 베풀어주시고 살진 송아지를 먹게 하심은 우리로 하여금 소 같은 힘으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람의 의를 멸하고 하나님의 의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의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송아지 같은 생물로 소같이 이기는 것이 되므로 의의 면류관을 더해 주십니다.

네 생물의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더해주시는 면류관은 우리가 하늘에서 누리게 될 영생입니다. 이러한 면류관을 받지 못하게 대항하고 타락하게 만드는 것이 붉은 말 탄 자입니다. 4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는데 그 위에 앉은 자에게 땅에서 평화를 제거하는 권세가 주어졌으니 그들이 서로 죽이더라. 또 그에게 큰 칼도 주어졌더라.

붉은 말은 악한 영들을 계시합니다. 악한 영들 중에 제일 악한 것이 계 13:11에 땅에서 올라오는 두 뿔 가진 짐승, 곧 적그리스도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거짓 선지자 한 사람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용인 마귀와 적그리스도로부터 권능을 받아서 많은 이적을 행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을 속이고 적그리스도를 그리스도같이 경배케 하는 거짓된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구약의 엘리야같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불을 하늘에서 땅 위로 내려오게 하는 큰 이적을 행하면서 적그리스도와 그의 정책을 따르도록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큰 목회자들이 앞 다투어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적그리스도에게로 넘어갈 것을 말씀했습니다. 타락한 큰 목회자들에게 속한 교인들은 별수 없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 사건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적 · 표적을 좋아하고 은사만 중요시 여기면 환란 날에 거짓 선지자의 유혹

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은사는 좋은 것이지만 은사 자체로 영혼을 살리는 것은 아닙니다. 은사는 영혼을 살리는 말씀을 믿는 데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의 간교한 권모술수에 넘어가지 않은 자는 이미 첫째 봉인을 떼어서 흰말 탄 자로 증거하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은 성도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피를 흘리게 하여 죽이는 것과 같이 성도들의 영적 생명을 죽이는 가장 악한 자입니다.

그들이 서로 죽이더라 - 환란 날에는 흰말 탄 자인 선지자 두 증인과 붉은 말 탄 자인 거짓 선지자가 서로 충돌하게 됩니다. 흰말 탄 자는 거짓 선지자의 말에 넘어간 성도들을 바로 깨닫게 하여 대적의 편에서 쫓겨내게 하는 일을 합니다. 반대로 거짓 선지자는 흰말 탄 자에 의해서 세워진 성도들을 계속 유혹하여 영적으로 죽이는 일을 합니다. 이렇게 양편이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이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을 죽인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엘리야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참된 하나님의 종임을 불이 내리서 증명한 후에 무엇을 했나요?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죽였습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의 거짓된 가르침에 의해 영혼들이 넘어졌기 때문입니다.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선지자 400명은 허깨비이기에 죽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둠속에서 멸망할 영혼에게, 마귀에게 속해 있는 영혼에게 말씀을 증거하면 그 영혼이 증거 받은 말씀에 의해 깨닫고 돌이켜서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죽이는 자를 죽여 버린 것이 됩니다. 붉은 말 탄 자가 큰 칼을 받았더라 - 큰 칼은 거짓 선지자가 받은 권세를 말합니다. 그는 계 13:11-18에 적그리스도의 형상에 경배하지 않는 자를 모두 죽이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또 짐승표 666을 받지 않으면 아무도 매매를 할 수 없게 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큰 칼입니다. 거짓 선지자 앞에서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왜 주님은 거짓 선지자에게 그러한 권세를 허락해 주셨나요? 환란 날에는 믿음으로 승리하고 구원에 이르는 것이 곧 순교를 통해 재림하시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시록의 중요한 진리의 맥입니다. 이것이 가려져 있어서 단지 환란 날에 예비처로 도망가서 주 재림 시 휴거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자들이 많습니다. 예비처는 순교의 믿음에 서지 못한 자들에 대해서 환란 시 두 증인의 말씀을 듣고 이광림 받는 자들에 대해서 주님이 후 3년 반 동안 보호 · 양육시키는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비처에 미리 갈 수 없습니다.

〈다음호에 계속〉

장한국 목사

주시랑교회 담임
예정진리총회 총회장



III.성막 영성과 구원 서정의 5단계 (25)

성막을 통한 구원사역의 비밀

〈지난호 이어서...〉

3)번제단(무릎에 참): 사넛물 은혜

하나님이 적량해보시니 믿음과 은혜의 물이 무릎에 찼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사넛물 은혜인데 소리도 요란하고 작은 물고기와 주변에 식물들도 살며 사람들이 물놀이도 할 수 있다. 영적으로 볼 때 좀 소란스럽기는 하지만 믿음이 상당히 성장한 단계로 자기 의와 혈기가 많이 줄어 기쁨과 내적 평화가 어느 정도 생긴 상태이다. 그러나 아직 성숙되지 못하여 내 눈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만 보며 부정적으로 불만을 표출한다. 이때에 자신이나 남들은 다 된 줄로 알고 속기가 심상이다. 그러나 사건을 만나게 되면 또다시 본성이 드러나게 된다.

4)물두멍(허리에 참): 강물 은혜

하나님이 적량하시니 물이 허리까지 찼다고 하신다. 소리도 없이 묵묵히 흐르는 강에는 큰 물고기를 비롯한 수많은 종류의 고기들이 살며, 강 주위에는 많은 식물들이 살고, 물 위로는 배가 떠다닌다. 영적으로 강물과 같은 은혜가 오는 단계로 내 의를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에 굴복하는 단계이다(롬 6:4-5, 엡 4:22-24, 고후 5:17). 마지막 깨어지고 부서지는 단계로 그 동안 세상 속에서 살아왔던 세월이 억울하고 분해서 고통이 따르게 된다. 고통이 끝나면서 모든 사물을 보는 시각이 자기 차원이 아닌 하나님의 차원으로 바뀌게 되고, 하나님만이 생명을 입을 절감하여, 아직도 영적으로 완전히 채워지지 못한 갈급함으로 고민하게 된다.

5)성소적 밀에 참: 바다 은혜

하나님이 적량하신 물이 턱 밑까지 찼다고 하신다. 물이 자동적으로 뜨게 되는데, 이는 자유함을 뜻하며, 바닷물과 같은 은혜를 말한다. 바다는 지구 곳곳에서 들어오는 모든 것들을 다 수용하며 큰 물고기들이 살며 큰 어선들이 세게 어느 곳이나 자유로이 다닐 수 있는 자유함이 있고 변화무쌍한 무한한 능력과 놀라운 힘이 있다. 이는 영적으로 볼 때 완전한 단계

송택규 박사

JTNTV 주필



를 말한다. 이 세상 어떤 것도 관용하고, 소화하여 걸리는 것이 없고, 성령님과 동행하므로 가는 곳마다 형통하여 남을 잘 되게 하고,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 능력있는 삶을 살게 된다(엡 4:13-14, 골 4:7-8-12).

이렇게 구원은 '믿습니다' 말 한마디로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장해 가는 것이다. 한 단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고, 은혜인 것이다. 또한 성장해가는 자체가 소망이요, 행복이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구원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의 단계별 비전을 심어주고 교육 훈련함으로써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게 하며, 그때그때마다 영적 회의를 느끼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발전하고 영성으로 변화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자들로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성막 속에 있는 모든 비밀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뜻과 사랑이 예표된 상징들로서 우리의 갈 길을 알려주신 것이다. 첫째 비밀인 '하늘 성소의 모형'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에게 하늘나라 천국에 대한 구원의 소망을 갖게 하시기 위함이다. 둘째 비밀인 '예수 탄생의 비밀'은 하나님 자신이 직접 인성을 입으시고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태어나시어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하늘로 다시 승천하시기까지의 전 생애를 예표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셨고, 예수님은 구원의 모델이 되셨다.

셋째 비밀인 '구원의 단계'는 인류가 구원을 얻기 위하여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를 구원의 단계, 단계를 통하여 자세하게 알려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하신 극진한 사랑의 배려였다. 넷째 비밀인 '교회'의 예배

모형'은 구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위한 생명으로, 그들이 마귀의 계교로 타락하지 않게 하기 위한 제도적 방편으로 주신 것이다.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예배를 통하여 말씀으로 무장하고, 축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어야 무사히 구원의 단계를 통과하여 천국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비밀은 '믿음의 점점과 은혜의 비밀'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알아서 구원의 길로 가도록 수수방관하지는 분이 아니고, 친히 권면하시고 책망하고 말을 안 들을 때는 벌(징계)을 내리기도 하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불꽃같은 분으로 보시고, 관찰하시고, 항상 자물에 달아 보신다. 우리를 마귀에게서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바로 은혜인 것이다. 우리는 이 은혜를 감사하며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이 다섯 가지 비밀을 살펴볼 때 하나님의 마음은 오직 자녀 사랑인 인류 구원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다섯 가지 비밀 중에서 가장 기초적으로 우리가 먼저 실천해야 할 것이 구원의 단계이다. 하나님은 구원의 단계 교육을 통하여 우리의 옛 사람이 깨어지고 부서져 새 사람으로 태어나 영성이 회복되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하셨다. 또한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예배 제도를 마련하셨으며 또 우리가 잘못 가지 않도록 지켜보시고, 점검하고 계신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구원은 무조건 믿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타락한 영혼이 마귀의 유혹과 마귀의 방법대로 살아온 인본적 사상을 깨고 나와 하나님의 성품인 영성의 컨셉으로 변화되어 가야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자기가 깨어지고 부서지는 고난과 아픔의 과정들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갈 수 없는 과정들이다. 그러므로 이 구원 단계의 과정들은 우리의 소망이요, 희망이며 감사요, 행복이다. 그 과정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넘쳐흐르기 때문이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동천교회



담임 이규필 목사
(홍신대학 이사장)

주일 예배 안내

주일대예배 오전 11시 주일오후예배 오후 2시
수요기도회 오후 7시30분
금요심야기도회 오후 9시구역예배(금) 각 구역별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 153길 94
☎(02)854-1326

대한예수교
장로회

신광교회



담임 전예희 목사

주일 예배 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인천시 부평구 부개1동 396-79
☎ (032)505-3351

대한예수교
장로회

시온교회



담임 조영만 목사

주일 예배 안내

주일오전 11시 30분
주일오후 2시 30분
수요예배 오후 8시 30분
금요예배 오후 8시 30분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039-2 (현대프라자 301호)
☎070-7501-2584 핸드폰 010-5355-2584
다음카페 http://cafe.daum.net/choym.com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소망교회



담임 서동기 목사

주일 예배 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3시

서울시 노원구 하계동 163-1
☎ (02)3296-0340

대한예수교
장로회

평안교회



담임 강대일 목사
(합동포수 총회장)

주일 예배 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서울시 중랑구 상봉 1동 40-5
☎ (02)433-0291(교)

대한예수교
장로회

천복복지교회



담임 임상국 목사

주일 예배 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1시 30분
수요일 오후 7시 30분

대구시 북구 동변동 U선수촌 213-703호
☎ (053)741-7732, 070-4220-7735

대한예수교
장로회

풍성한교회



담임 서재식 목사

주일 예배 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경기도 시흥시 뱀배장터로 4, 3층(신천동)
☎ (031)315-8290

대한예수교
장로회

다니엘교회



담임 고성규 목사

주일 예배 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경기도 시흥시 검바위1로 52-1
☎(031)312-2613

대한예수교
장로회

평안교회



담임 장승현 목사

주일 예배 안내

주일낮예배 오전 11:00
주일 오후 오후 2:00
삼일예배 오후 7:30

충남 당진시 송악읍 봉하로 62-5(봉교리 55-6)
☎ (041)356-0644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심교회



담임 사금열 목사

주일 예배 안내

주일 1부예배 오전 10:30
주일 2부예배 오후 1:30
수요 밤 예배 오후 7:00
금요발기기도회 오후 9:00
심야작정기도회 오후 9:00(365일)

주소 :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114-4
H.P : 010-5225-1253

대한예수교
장로회

주시랑교회



담임 장한국 목사
(진리총회장)

주일 예배 안내

주일대예배 오전 11시
주일오후예배 오후 2시
수요예배 오후 7시30
새벽예배 새벽 5시
금요철야예배 밤 9시

경기도 의왕시 계원대학로10, 701호(내손동)
홈페이지 http://jicn.kr ☎031)424-7621, H.P 010-4436-7060

대한예수교
장로회

성서하나님의교회



담임 이정민 목사

주일 예배 안내

주일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수요 기도회오후 8:00
금요 기도회오후 9:00
2시 기도회매일(월~토)오후 2:00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 127-3호
☎(02)465-4090

■ 목약칼럼 -22-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려면

이기는 생명은 오직 주 예수입니다

〈지난호 이어서...〉

17. 불순종과 죄로 인한 실패와 좌절을 허락하신 이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동정과 긍휼만 받는 자녀보다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장성한 참 자녀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스스로 선택하게 하십니다.

‘자기 뜻대로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이냐!’ 이것을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순종과 범죄를 허락했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제 관심이 됩니까?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밋세바를 취하고 충직한 우리아를 계계를 써서 죽일 때 하나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까? 보고 계셨다면 사랑하는 자녀가 범죄하고자 했을 때 막아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뱀의 꾀에 빠져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 먹으려 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따먹으면 정녕 죽이리라고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려는 순간 왜 막지 않으셨습니까? 왜 이런 불순종과 범죄를 막지 않으시고 허락하신 것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동등한 사랑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동정과 구결이 아닌 서로간의 동등한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과 죄로 인한 실패와 좌절을 막지 않으시고 허락하시는(우리의 자유의지대로 내버려두심) 이유는 이러한 불순종과 죄로 인한 실패와 좌절을 통해 자신의 부족함과 죄인 됨을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스스로 나와 항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므로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참 자녀를 얻기 원하십니다. 오늘도 헝기 내는 죄를 뱉었습니까? 이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 범죄로 인한 후환이 두려워 떨며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범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 아버지의 넓은 사랑을 알고 그분의 사랑이 자신을 강권함으로 인해 이 죄를,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하고 기뻐



조영만 목사
인천시온교회
JTNTV운영이사

하며 끊어 버릴 수 있는 아들의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언제 내려칠지 모르는 채적으로 인하여 두려워 떨며 복종하려고 하고 자신의 범죄로 인한 후환과 하나님이 두려워 회개하고자 하는 종의 신앙을 버리고, 불순종과 죄로 인한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라도 아버지의 넓은 사랑과 은혜를 알게 하고자 애타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효도하는 마음으로 먼저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 감동으로 다가올 때 죄와 불의와 불법과 원수 마귀는 두려워 떨며 자신의 마수를 걷고 출행랑을 칠 줄 믿습니다.

18. 이기는 생명은 오직 주 예수입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취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취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싸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린 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짚어잡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 이라 우리 산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사랑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고후 4:6~12).

시골 어느 마을에 사는 불쌍한 거지가 매일 구걸을 하며 살았는데 며

칠 째 보이지 않아, 몇 사람이 거지가 사는 움막에 들어가 보니 병이 들어 굶어 죽어 있었었습니다. 거지를 불쌍히 여긴 몇 사람이 시신을 거두는데 바지 안에 비닐 주머니가 있고 그 안에 1억원짜리 수표가 들어 있는 것입니다.

이 거지가 죽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1억 원이 너무 귀해서 아끼고 아끼다가 못 쓰고 죽었다고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 1억원짜리 수표를 바지 안에 잘 감춘 것을 잊었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1억원짜리 수표를 사용하는 법을 몰라서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내용이 어떻게 간에 1억원짜리 수표를 가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굶어 죽었다는 것은 너무 불쌍하고 가련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이 거지라면 어떡하실 겁니까? 굶어 죽을 염려는 없으시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모습이 이 불쌍하고 가련한 거지와 같지 않겠습니까? 1억원보다 1조원보다 크시고 우주만물보다 크신 주님을 마음 안에 모시고 있으면서도 죄로 인한 실패와 좌절,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사망과 환난에 빠져 고통 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원한 생명,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한 생명을 받으셨습니까? 이 생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고전 6: 17)고 하심 같이 우리는 이 전능한 생명과 하나가 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롬 8: 11).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는 이미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한 영원한 생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요 10: 10) 고 하셨습니다. 과연 여러분 안에 계신 영원한 생명이요 전능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풍성히 살아 나타나고 계십니까?

大韓民國 의 未來를 위한 教育의 改革을 위한 研究 7

미래 교육에는 기독교 영성교육이 필요하다

〈지난호 이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렇다면, 인성 지도사는 어떤 내용을 배울까요? * 인성교육이란 쉽게 말해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 마음을 어떻게 쓰고 다스리는가를 기르는 교육입니다.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꾸리고 타인, 공동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교육이 바로 인성지도사 과정이다. 전인적인 품성과 리더십을 키우고 바른 습관과 태도를 기를 수 있는 행동수정과 인성 덕목의 함양과 핵심가치를 배울수 있는 인성지도사 교육과정, 남녀노소 필요한 과정입니다!

분노조절 상담지도사, 캘리그라피지도사, 심리상담사 미술심리상담지도사, 부모교육 지도사, 인성지도사, 가족 심리상담사 자기주도 학습코치, 스피치지도사,

이미지 메이킹, 방과후지도사 독서지도사, 아동심리상담사, 동화구연지도사, 아동미술지도사

아동폭력예방상담사, 순유회지도사, 아동 요리지도사, 클레이아트 지도사, 마지막으로 성경을 배워야한다

미래 교육에는 기독교 영성교육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우리 교육과 종교는 분리되어 있다. 초종교교육 보면 6조인가 그걸 때문에 교육과 종교가 분리되어 있는데 너무 분리 되다보니까 합리주의, 이성주의, 과학주의만 존중을 해요. 영혼이 다뤄지지 않아요. 영혼이 따뜻하고 사랑해야 되잖아요. 영혼이란 도대체 뭘데 그라냐, 내가 내안에 또 다른 나를 세우는 거예요. 어떤 나? 현재의 나보다 더 고결하고 더 숭고하고 더 아름답고 더 멋있고 더 지혜로운 더 따뜻한 나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를 사랑하고 남을 사랑하는 한 인격체인 나와 대화하는 거예요. 이게 영성교육의 시작입니다.

나는 하나님부터 위로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에너지를 충분히 받고, 우리 아이들이 그런 선생님과 친구가



김창룡 목사
하나님이디자인하신교회 담임목사
JTNTV 상임이사

있으면 내 안에 친구가 있으면 얼마나 좋은가. 이게 기독교 영성교육이다. 그러한 영혼을 발견한 학생들은 각 파트마다 자기 목표를 분명히 하게 되요. 그런 아이들은 슬데없는 에너지로 낭비하지 않게 되거든요. 이번에 진정 제가 이 영성교육을 이렇게 다시 일으켜 세워서 정말 훌륭한

교회의 영성이 살아나는 교육,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한다

지도사 또 어찌 생각하면 그 지도사를 선택할 줄 아는 훌륭한 우리 대중들을 함께 이렇게 우리 교육을 통해서 정말 기쁘게 한다면 이걸 정말 우리 미래교육이 정말 희망차게 될 것이다.. 모든 지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부터 온다. 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다. 사람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이끌고 가는 리더쉽은 바로 여기에서 나온다, 지금 우리나라를 보고 느끼고 있다면 혼돈의 시대 지혜로운 지도자가 필요하다, 인물을 없애고 한탄하지 말고 지금부터 새로 키워서 100년을 내다보아야 한다. 인물을 키워 내야한다. 어려서부터 이 하나님 진리와 사랑 안에서 교육해야한다.

지금 우리의 모습도 130년전 혼돈의 시대와 다른바없다, 나라까지 빼앗기는 수도모도 겪었다. 그때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와 교회학교가 세워지고 이들이 독립운동의 초석이 되고 삼일정신의 기초가 된것을 지난번 발표에서 필자는 밝힌 적 있다. 이제

는 서양선교사들의 도움을 받지 말고 우리 힘으로 이 나라의 교회와 목사와 성도들이 이 나라를 변화시키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교회의 영성이 살아나는 교육,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한다.

이미 우리는 100년전 평양 대부흥의 성령운동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 핵심은 회개운동이다. 우리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려면 과거와 현재 우리의 타락한 모습을 직시하고 남을 탓하지 말고 당파싸움 하지 말고 모두가 회개하며 분명한 역사의식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해야한다. 상처는 자꾸 파면 깊어지고 싸매주고 보살피면 낫는다. 서로가 서로를 회복시키고 살려내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한다. 이러한 교육이 필요하다.

자유와 회복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중 가장 많은 사역이다. 그리스도의 영성을 교육하고 배워

야한다. 정부가 제시하는 공교육이 문제가 많다면 바꾸는 것 이 당연하다. 항공모함 회전하는 속도는 절차가 길고 복잡하다. 인내하면서 계속적인 장기적 대안을 제시하면서 단기적 전략으로, 대안교육 가정교육, 교회학교 교육에서부터 신속하게 방법을 바꾸는 것도 필요하다. 성경은 이미 우리의 염려에 대한 답이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 민족을 구하고 나라를 구하고 당시대 패권을 잡았던 제국을 다스리는 자가 된 것을 보여주었다. 지혜로운 사람, 믿음의 사람, 의로운 사람, 정직한사람, 용기 있는 신앙인을 가르치고 배울해야한다.

지금까지 2 大韓民國 의 未來를 위한 教育의 改革을 위한 研究 -7- (무한경쟁시대 미래 교육방향 제시)에 대해서 고찰해 보았습니다. 이 글을 기고해주신 하나님이디자인하신교회 김창룡 목사(본지 상임이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주일에배안내
주일오전예배 오전 11시
주일오후예배 오후 2시
수요저녁예배 오후 8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삼성5길 42 원앙마을 부영아파트 116동 206호
H.P 010-8268-0091, 010-3710-9119

대한예수교
장로회

주일에배안내
주일오전 11시 오후 2시
수요일 7시, 금요일 저녁 7시
화요일 2시 집회

인천시 부평구 청천1동 48-161
H.P 010-3499-2441

대한예수교
장로회

주일에배안내
주일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주일밤 오후 7시 30분
수요예배 오후 7시 30분

충남 홍성군 홍성읍 내포로 146번길 36-8
☎(041)634-0441(사무실) 633-6146(목양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주일에배안내
주일오전 10시30분 오후 2시
새벽예배 6시
수요예배 저녁 7시30분
금요예배 저녁 7시30분

서울시 금천구 독산로24길 11(2층)시흥동
H.P 010-9600-5028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주일에배안내
주일 1부 오전 11시
주일 2부 오후 2시
수요예배 오후 7시

충남 공주시 봉황동 96번지
☎(041)854-3676 H.P010-4320-1507

대한예수교
장로회

주일에배안내
주일 오전 11:00
오후 2: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기도회 저녁 9:00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송내동 383-21
☎(032)667-7147 H.P 010-3287-1500

대한예수교
장로회

주일에배안내
주일오전 11시
주일오후 7시
수요일 오후 7시
새벽기도 오전 5시30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냉천로177 지하 1층(안양동)

장기요양기관(행복의집)

가족처럼
어르신(환자)을 모십니다.
(등급판정-1급 ~3급자 환영)

www.1004tv.net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늑구리
☎(033)541-0687 H.P 010-7580-1004

강릉산성그리스도의교회

주일에배안내
주일 오전 10시 30분
오후 1시
오후 1시 30분
오후 2시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오이골말길58-20
☎ (033)655-0691, 0692 H.P 010-6409-0091

대한예수교
장로회

주일에배안내
1부 주일 오전 11:00
2부 오후 1:30
주일저녁 오후 7:00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이로75번길 30-5
☎(032)321-9109

대한예수교
장로회

주일에배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한경총 사무총장
사도영성신학연구원 원장

서울시 구로구 개봉3동 370-40
☎(02)583-1955 H.P:010-7585-1955

조에 교정선교회

조에/생명살리는 교정선교
청송교도소
청주교도소
춘천교도소
직촌(직업훈련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장내로 89번길 9-1 102호(안양동)
☎(070)8632-6993 H.P 010-3035-5704

예장합동 제103회 총회 이승희 총회장 추대

“변화의 도전 선포, 시행착오, 조직적인 저항 극복”. 부총회장 김종준 목사, 강의창 장로



국내 최대 규모 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이 10일 대구 동구 반야월교회(이승희 목사)에서 제103회 총회를 열고, 직전 부총회장 이승희 목사(반야월교회)를 신임 총회장으로 추대했다.

예장합동은 '변화하라! 교회의 희망으로, 민족의 희망으로'를 이번 총회의 주제로 정하고, 개혁과



변화를 새롭게 다짐했다. 신임 총회장 이승희 목사는 "총신대 사태와 같은 여러 산적한 문제들로 인해 총회가 신뢰를 빼앗기고 미래를 잃어가고 있다"며 "103회 총회는 변화의 도전을 선포하고, 시행착오와 조직적인 저항을 극복하겠

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러면서 "총회장의 권한을 충분히 활용하되 권력을 남용하지 않고, 불법과 반칙이 아닌 질서를 세워가겠다"고 덧붙였다.

예장합동 제103회 신임원은 다음과 같다.

신임 총회장 이승희 목사, 부총회장 김종준 목사, 강인창 장로, 서기 김종혁 목사, 부서기 정창수 목사, 회록서기 진용훈 목사, 회계 이대봉 장로, 부회계 이영구 장로 등이 당선됐다.

예장합동개척, 제103회 총회장 정서영 목사 선출

큰 교회란 복음을 많이 전하는 성도가 섬기는 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개척총회(총회장 정서영 목사)는 지난 11일 오전11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소재 기쁜우리교회(담임 이현숙 목사)에서 제103회 정기총회를 경건히 개회했다.

서기 이종영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개회예배는 안양노회장 이경영 목사의 대표기도, 남수원노회장 박미숙 목사의 성경봉독(마22:1-14), 기쁜우리교회 중창단(임성미 집사의11인)의 특별찬송, 총회장 정서영 목사의 "혼인잔치비유"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정서영 목사는 "지금 기독교는 이단문제, 동성애 합법화문제, 종교인 과세문제,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 이슬람교가 밀려오는 문제 등, 생각은 심각하게 한다지만, 행

회장 공철호 목사의 봉헌기도, 사회자의 광고후 총회장의 축도로 개회예배를 마쳤다.

부총회장 김재홍 목사의 집례로 성찬예식은 전주중앙노회장 박동환 목사의 기도, 강동노회장 지용분 목사의 성경봉독(요6:47-48), 부총회장 김재홍 목사가 "영생을 가진 자"란 제목으로 본문을 근거 설교 했으며, 분병,분잔후 부총회장 축도로 성찬예식을 마쳤다.

총회장 정서영 목사 사회로 총회 회무처리로 이어졌다. 회원자격심사, 회원점명, 개회선언, 회순채택, 각부보고, 가국경과보고, 각노회보고, 임원선거, 신임원 취임인사, 신안건토의, 차기회의장소 선정후 총회장 정서영 목사의 축도 후 폐회선언으로 성료됐다.



예장대신백석총회 명칭변경, 총회장에 안태준 목사 선출

구 백석측과 대신측 극적으로 교단명칭변경 합의



10일 천안 백석대학교에서 제41회 총회를 개최한 (구)예장대신총회는 교단명칭을 '예장 백석대신총회'로 변경했다. 구 백석측과 구 대신측이 교단통합 3년 만에 교단명칭을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대신총회로 변경했다.

대신총회(총회장 김동성 목사) 제53회 정기총회가 '내 양을 먹이라'란 주제로 10-13일까지 기흥 골드웨미리 콘도에서 개최 됐다. 총회장 김동성 목사는 "무너진 형제애를 회복하는 귀한 시간이 되



를 바란다"면서 "아픈 기억과 상한 감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스스로 치유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이번 대신총회는 732개 교회에서 통합합류측의 600여 교회와 합류 1330교회로 회복 됐으며, 가을노회를 기점으로 2백여 교회 이상이 더 복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신백석총회는 당선된 임원은 다음과 같다.

총회장 안태준 목사(등대교회), 부총회장 황형식 목사(장항성일교회), 이장일 장로(정동교회), 서기 정영전 목사(풍암교회), 회록서기 유정식 목사(한길교회), 부회록서기 함인주 목사(송탄성도교

회), 회계 최승호 장로(정원교회), 부회계 김병철 장로(생명샘교회) 등이 추대됐다.

이날 신임 안태준 총회장은 "교단의 정체성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복음에 대한 열정과 개혁 정신을 기본으로 희망대신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겠다"고 피력했다.

예장통합 제103회 정기총회 신임원 선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제103회 정기총회가 10일 전북 익산 이리신광교회에서 열렸다. '영적 부흥으로 민족의 동반자 되게 하소서'를 주제로 열린 총회에는 전국 66개 노회 1500여 명의 총대들이 참석했다.

이날 예장통합총회는 제103회기 신임 총회장에 림형식 목사(한양평촌교회)가 자동승계 된 가운데

부총회장 김태영 목사(부산 백양로교회), 차주목 장로(제천 명락교회), 서기 김의식 목사(치유하는교회), 부서기 조의환 목사(김해교회), 회록서기 윤마태 목사(천안서부교회), 부회록서기 최상민 목사(영송교회), 회계 조중현 장로(영주교회), 부회계 김미순 장로(제주영락교회)등이 예장통합총회 제103회 임원에 당선됐다.



꿈이 이루어지는 교회

www.mokpodream.org

대한예수교장로회

꿈의교회

DREAMS COME TRUE...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

2018년 2명이상 전도합니다.

예/배/시/간	
• 주일 1부예배 (일) 오전7시30분	• 주일 2부예배 (일) 오전 11시
• 주일밤 찬양예배 (일) 저녁7시30분	• 삼일밤 예배 (수) 저녁 7시30분
• 금요일아예배 (금) 저녁 9시	• 새벽기도회 새벽 5시
• 오후기도회 오후 3시	• 저녁기도회 저녁 9시
	• 철야기도회 새벽 0시 30분

담임목사 이요셉

주소:전남 목포시 산정로322-3(연산동) 전화/ 061) 277-0496 차량운행 : BUS 3번, 60번, 61번, 600번

http://www.mokpojuan.com

섬기는 분

부 목 사 모정선, 박민수, 성삼수, 모성온

파송선교사 임재선, 김은미, 안윤기, 김진희, 김미경

협 동 목 사 장장화(은퇴)

전 도 사 전영욱, 추정희, 송선택, 떼(베트남:신학교 유학)

시 무 장 로 송영문, 천은상, 정승안, 이현필, 주종필, 김정서

김영규, 김학진, 김진호, 모상후, 송현중

협 동 장 로 이병화

은 퇴 장 로 고재연, 원복희, 장광호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예/배/시/간
주일낮예배 1회 오전 8:00
3회 오전 11:30
주일밤예배 오후 7:00
수 요 예 배 오후 7:30 (겨울 7:00)
새 벽 예 배 오전 5:00

본교회 : 전라남도 목포시 청호로 159(북항동)
TEL. 061)272-4908, FAX:(061)276-1006

남약예배당 : 목포시 남약2로 52번길 남약크리나A동 301 TEL. 061-287-0692

용해주안교회 : 목포시 용해지구로 61(연산동) 삼암빌딩 301호 전화 061-277-0691

대한예수교장로회 목포주안교회 MokpoJuan Presbyterian Church

칼빈의 설교관(說敎觀) 5

“우리가 하나님과 전쟁하지 않고서는 진리를 왜곡(歪曲)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꾸짖어야 할 내가 악을 허용하고자 한다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같은 일이 정당하게 되거나 또는 우리가 이런 것을 구실로 이용하게 된다면 우리는 아무리 이것 저것 갖다 붙여 보아도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이며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양심(良心)은 우리를 매우 꾸짖게 됩니다.”

또한, 그는 사도행전 20장 18절 이하를 설교하면서 “...나는 이처럼 내가 내 양심에 따라 해야 할 바를 수행하도록 사람들이 허락치 않든 또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내게는 전혀 합법적이지 않는 일을 하라고 사람들이 날 강요하든 간에 나는 내가 해야 할 일 이외의 것을 넘어서 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자유로이 설교하고 또 여러분에게 봉사할 수 있는 한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이 일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칼빈은 그의 욕기 33:1-7 설교에서 말씀 사역자와 청중에 대해 이렇게 설교했다. “...하나님을 따라 곧게 말하고 있는 사람은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일에 시선을 돌려서는 안됩니다. 만일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거나 칭찬을 받는 일에 좌우된다면 우리에게 선한 원리가 하나도 없을 것이고, 결국 고통 밖에는 당할 것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는 문제가 될 때에는 더욱 더 그러합니다....만일 피조물에 불과한 인생들을 보고서 두려워져 마땅히 말해야 할 바대로 자유롭게 말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처사가 아닐까요?”

어떤 세상 군왕이 한 사람을 파송하였는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비웃고 그 임무를 마땅히 행하지 못하게 해도 가만히 있으며, 자기가 위임 맡은 메시지를 감히 전하지 않고 있다면, 그 겉장이는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면지에 불과하고 아무 쪽에도 쓸모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당신을 섬기도록 받아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영예로운 임무를 주시고, 모든 권위와 경외심을 옷입혀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를 무섭게 위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왜곡시켰다 합시다.

아니면 그 하나님의 진리가 본원적으로 가지고 있는 권위를 더 이상 갖지 못하게 그 진리를 전한다고 합시다. 그만큼 하나님의 질책(叱責)을 받을만한 일이 또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대목에서 두 가지의 교훈을 얻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목회자로 가르침의 직무를 받은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은 결연한 자세를 가지고 예레미야가 말하듯이 어느 것에도 관여치 말고 싸우는 날의 장수(將帥)처럼 담대(膽大)해야 합니다(참조.예레



서명범 목사
예수매일리처치 담임목사

미야 15:20에는 이런 말씀이 있다.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못 성벽이 되게 하리니”). 왜냐하면 세상에는 말할 수 없이 강력한 사람들이 언제나 있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스스로 망각하여 자기들을 창조했고 조성하신 하나님께 복종할 수 없는 때, 도저히 남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일관성을 지니고 우리의 의무를 감당할 때, 적수를 만나거나 불쾌함을 맛보게 될 것임을 당연한 일로 여겨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대적과 불쾌함을 만나더라도 결코 믿음을 굽혀서는 안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목회자로 장립받은 우리들은 마땅히 그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로 또한 여기서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인 교훈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우리 죄를 책망하는 것을 듣고 오만한 자세를 취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노를 격발해서는 안됩니다. 우리의 등을 가볍게 문질러 주는 것을 가지고 노를 격발할 정도로 분개해서도 안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해해야 마땅한 것처럼 생각할 정도로 어리석거나 주재님에서도 안됩니다. 우리 속에 어떤 선한 기질이 있는 채 하면서 우리를 아껴 달라고 요구해도 안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전파된 것은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자신들을 내맡기게 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각자 누구나 다 그 일을 기꺼운 마음으로 해야합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왕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마땅히 하나님의 진리가 전파될 때 자신을 낮추어야 함을 압시다. 왜 그렇습니까? 왕들이라 할지라도 그 점을 의식해야만 함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설교하는 그 사람이 어떠한 주인, 어떠한 상전으로부터 보냄 받았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받아야 하고 온 인류를 지배하는 주관적인 통치권을 가지신 분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달았다면, 그것은 마치 하나님더러 본성(本性)을 바꾸시라고 요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고,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낮추라고 당부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마귀적인 무모함이 아닙니까? 그러나 모든 겸손(謙遜)과 겸비(謙卑)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법을 배웁시다. 우리의 순종이 이러한 방면에서 시험 당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응당 그래야 하듯이 어느 누구도 그러한 시금석에서 면제될 수 없습니다. 모든 허물이 곧바로 드러나고야 맙니다.

제2장 사도영성 운동의 성경적 기초(24)

영성생활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 ‘인간의 성화와 구원’

〈지나호 이어서〉

사람이 회복된 타자 중심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는 반드시 신적 생명력이 넘치며 영성이 충만하여 중요로울 뿐 아니라 이를 토대로 영적 부흥과 성장이 일어날 수 있어야 한다. 베드로와 초대교회가 온전한 변화를 이루고 말씀을 전하였을 때 하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수가 하루에 삼천 명이 되었다(행 2:41). 단 하루 만에 구두로 전달되는 설교라는 한 가지 요소만으로 삼천 명이 모였다는 상황이 정보화 시대를 사는 이 시대에서 이루어진다면 가공할만한 일이다.

이로 미루어 보아 진정한 영성의 변화는 한 개인의 발전과 성장 뿐 아니라 교회의 성장을 가져 와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전술된 바대로 첫째, 영성교육을 통해 하나님 중심이며 타자 중심적인 삶에로의 전향을 위해서 교육과정과 교육 방법을

이 구성되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하나님과 이웃을 목숨을 바쳐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로 변화시켜야 한다. 이를 위한 영성교육과정들이 연구되어지고 개발되어야 한다.

둘째, 타자 중심으로 변화된 진정한 영성의 소유자들이 함께 환경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주도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충만한 복을 구현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세상에 증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영성교육 과정은 세상과 시대를 바라보는 통찰력을 가지고 개발되어야 한다. 시대와 문화를 무시하는 일은 오히려 영성발달의 둔화를 초래하고 이 시대에 속한 많은 영혼들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영성교육은 진정한 영성의 원리를 적용시켜 시대와 문화를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영성교육의 결과로 개인 삶의 변화는 물론이고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국가 공동체, 인류 공동체의 확실한 변화가 확대되어야 한다. 그것의 가시적인 효과는 교회 부흥과 성장으로 나타나져야 한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시적으로 작은 교회, 큰 교회란 용어는 별 의미가 없지만, 이 땅에서는 성도들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훨씬 넓고, 깊고, 풍부하게 실행할 수 있다.

현대의 대중매체가 다수의 정신 세계를 지배하듯 이 대중 영성교육에 대한 연구가 실시되어야 한다. 대중 영성교육의 효과는 작은 집단보다는 큰 집단에서 효율적인 결과가 기대된다. 개인이나 작은 집단을 선호하거나 옹호하는 영성교육의 태도도 시대에 따라 변화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영성교육은 개인, 중소 집단, 대집단을 대상으로 한 교

홍향표(요한)목사
사도영성신학 학장



육과정을 연구하고 개발할 수 있어야 한다. ‘영성생활’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다. 따라서 영성생활이 탐구해야 할 문제는 기독교적 생활의 목표나 목적과 관련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심은 인간이 생명을 얻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고자 함이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요 10:10). 만물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창조물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께의 필요한 생명을 참여하는 것이다. 영성생활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이며 생활에 있어서 ‘인간의 성화와 구원’이다.

(다음호에 계속)

| 여름 타작마당 2 |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지나호 이어서〉

여기서 ‘철’이 나온다. 여기 철은 아주 강한 강철을 말한다. 그러나 이 강한 철이 부서진다고 했다. 그리고 진흙과, 놋과, 은과, 금까지도 박살이 난다고 했다. 부서지고, 여름 타작마당의 축정이와 같이 바람에 날려가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간 곳이 없다.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한 돌에 맞아서 박살이 나고, 어디로 사라졌는지 간 곳이 없다. 지금 등장한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은 이 세상 나라들을 상징한다.

특히 ① ‘금’ = 느부갓네살이 다스리고 있는 바빌론 왕국, ② ‘은’ = 메대, 파사(파르시아), ③ ‘놋’ = 온 세계를 다스리게 될 제국 ‘그리스 제국’ ④ 강한 ‘철’ = 로마 제국, 수많은 나라들을 쳐부수고 정복, ⑤ ‘철과 진흙’ = 로마 제국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나라들을 상징한다.

이 강한 나라들이 한 돌에 맞아서 그만 산산 조각이 나고 가루가 되어 사라져버린다. 여기서 한 돌은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며, 그렇게 강한 나라들도 결

국 여름 타작마당의 축정이 같이 산산 조각이 나서 날려 가고 만다 고 하겠다. 이 말씀의 의미는 앞으로 나타날 짐승, 적그리스도의 강한 나라 로마의 통치도 한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박살이 나고 다시는 그 흔적도 찾아볼 수 없게 된다는 말씀이다.

모든 세계정부는 이제 우리 주님의 나라가 되기 때문에 여름 타작마당의 축정이 같이 쳐서 날려 버린다. 그래서 여름 타작마당은 한 마디로 축소를 한다던 저주와 축복의 장소가 된다. 이스라엘 나라는 여름에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하는데, 붉은 땀방울을 흘리면서 보리 추수를 한다. 추수하는 것은 우리나라와 비슷하다. 그러나 계절적으로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그들의 추수기는 약력으로 4월에서 5월이 된다. 기우에 변동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이스라엘의 내륙 지방은 4월 초에 추수를 시작하여 타작을 한다.

그리고 해안 지방에서는 대략 4월 8일 경에 시작한다. 반면 산지에 사는 4월 중순경에 타작마당이 시

작된다. 이 기간은 대략 유월절에서 오순절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유월절에서 오순절까지의 기간은 약 50일간의 기간을 말한다. 그래서 여름 타작마당을 어디에 비유를 두는가 하면 50일째인 77절인 맥추절을 말한다.

본문 막13:28~30절, 이 말씀에서 철이 나온다. 여기 철은 아주 강한 강철을 말한다. 그런데 이 강한 철이 부서져 버린다고 했다. 그리고 진흙과, 놋과, 은과, 금까지도 박살이 난다고 했다. 부서져 버리고, 이것들이 타작마당의 축정이와 같이 바람에 날려 사라지고, 간 곳이 없다고 했다.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한 돌에 맞아서 박살이 나고, 어디로 사라져 버렸는지, 간 곳이 없다. 지금 등장한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은 세상 나라들을 상징한다.

여기서 ① ‘금’ = 느부갓네살이 다스리고 있는 바빌론 왕국, ② ‘은’ = 메대, 파사(파르시아), ③ ‘놋’ = 온 세계를 다스리게 될 제국 ‘그리스 제국’ ④ 강한 ‘철’ = 로마 제국, 수많은 나라들을 쳐부수고 정복, ⑤

정기남 목사
편집인



‘철과 진흙’ = 로마 제국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나라들을 말한다. 이 강한 나라들이 한 돌에 맞아서 그만 산산 조각이 나고 가루가 되어 사라져버렸다. 여기서 한 돌은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다시 말하면 그렇게도 강한 나라들도 결국 타작마당의 축정이 같이 날려 가버리고 말 것들이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을 말하는가? 앞으로 나타날 짐승, 적그리스도의 강한 나라 로마의 통치도 한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박살이 나고 다시는 그 흔적도 찾아볼 수 없게 된다는 말씀이다. 모든 세계 정부는 이제 우리 주님의 나라가 되기 때문에 타작마당의 축정이 같이 쳐서 날려 버린다고 했다. 그래서 여름 타작마당은 한마디로 축소를 한다던 저주와 축복의 장소가 된다.

(다음호에 계속)

지저스타임즈는 광고와 구독료로 신문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저스타임즈 신문 애독자 여러분께

본지는 구독료 및 광고료로 신문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와 가정 일터에서도 부흥과 발전,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전 직원일동이 기도드립니다. 신문은 애독자님들의 구독료 및 선교비, 광고료 또는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저스타임즈는 올 10월이면 창간 13주년을 맞이합니다. 본지는 인터넷방송을 통하여 국내외로 복음과 교회소식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http://www.jtntv.kr> & <http://www.cpj.kr> 두 곳에서 jtntv로 또는 cpj를 통해 복음을 전파하고 교계소식과 각 교회의 주일예배 설교를 영상을 통해 전파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도와 후원을 소망합니다.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서울다 07837(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실천합니다.)

지저스타임즈 대표 정기남 목사

· 후원 계좌 하나 : 758-910292-36807 정기남, 농협 : 455030-56-005509 정기남, 우체국 : 310029-02-152769 정기남

1년 구독료 50,000원, 신문 방송을 후원하실 분은 1구좌 1만원부터~ 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주소와 전화번호를 본사 대표 010-5468-6574(정기남 목사)로 문자주시면 신문을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지저스타임즈

THE Jesus Times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지양로 176번길 32호 대운빌라 2층 202호

TEL 070)8230-0034, FAX겸용 032)672-3031, H.P 010)5468-6574, E-mail : jtppress@hanmail.net / jtntvcjp@naver.com





2018 주님과 함께 가정예배 소진우 목사(예복 교회 담임 / 본지 사장)



소진우 목사

- 예복교회 담임
- 지저스타임즈 · JTNTV 방송 사장
- 라이즈월드미션 총재
- 극동방송 칼럼리스트
- 백성TV 칼럼리스트
- CTS 칼럼리스트

제목: 묵시에 대한 이사야의 반응 성경: 이사야 21:1-4 찬송: 451

하나님의 묵시를 본 이사야는 그 묵시가 너무 끔찍해 신체와 마음에 큰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형편을 깊이 생각 한다면, 우리도 하나님 없이 진노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여야 하겠습니다. 마병대가 쌍쌍이 온다는 표현으로 보아 그들은 두 민족이 섞인 군대로 보여집니다. 바빌로니아의 수도 바벨론은 메대와 바사를 병합하여 바사 제국을 세운 고레스에 의해서 주전 539년경에 함락되었습니다.

제목: 이상 골짜기 성경: 이사야 22:1 찬송: 460

이상 혹은 환상의 골짜기라는 이 말은 여호와께서 이상 중에 임재하셨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였던 장소인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한편 5절에도 나오는 이 '이상 골짜기'라는 말은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이 그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임을 암시합니다.

제목: 유대인들이 대적을 막기 위해서 한 일 성경: 이사야 22:9-11 찬송: 360

다윗 성의 무너진 곳을 보수하고 물을 모으며, 가옥을 계수하고 성벽을 견고케 하며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습니다. 산해립의 위협을 느낀 히스기야는 다윗 성 서편의 기혼 샘에서 실로암 못에 이르는 지하 수도관을 만들었던 것입니다(대하34:4-8). 그러나 이러한 행위 모두는 인간적인 방책에 불과합니다. 성도가 진

정으로 의뢰하고 앙망해야 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입니다(사40:31).

제목: 이사야를 쟈나에게 보내신 하나님 성경: 이사야 22:16 찬송: 335

쟈나는 예루살렘과 아무 연관도 없는 이방인인데, 자기의 높은 지위를 이용하여 저명한 유다의 왕들이나 파는 바위 무덤을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쟈나는 자신이 그 무덤에 묻히지도 못할 것인데도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막대한 돈을 들여 묘실을 샀습니다. 이것은 쟈나가 자신을 위대한 자라고 생각하여 유다의 열왕들이 묻힌 장소에 함께 묻히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제목: 엘리야김/다윗 집의 열쇠 성경: 이사야 22:20-22 찬송: 237

그는 히스기야의 궁내 대신으로 예루살렘 성이 포위당했을 때 앗수르 왕 산해립의 사자들과 협상을 위해서 파견된 사람들의 대변인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선지자 이사야에게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보내지기도 했습니다. 이는 궁전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전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요 문이십니다(요3:7). 그리고 예수님께서서는 천국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한을 베드로에게 주셨습니다(마16:18, 19). 나아가 그분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권한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제목: 시홀의 곡식 성경: 이사야 23:3 찬송: 252

시홀이란 애굽 동부 국경 가까이에 있는 나일강의 한 지류인 펠루시와 강이나 무바스티데 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홀의 곡식'이라는 말은 애굽의 곡물을 의미하며, 시돈 사람들이 자신의 손으로 일하지 않고 타민족, 곧 애굽인들의 곡물 거래로 생계를 이어나갔음을 암시합니다.

제목: 두로의 주된 산업 성경: 이사야 23:5-7 찬송: 309

베니게의 가장 중요하고 오래된 도시 국가인 두로는 다윗과 솔로몬의 무역 동맹자 히람 왕의 성이었습니다. 그들은 무역에 힘썼으며 물갈, 유리 등의 산업을 발달시켜 지중해 상업의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한편 이러한 두로를 향해 구약의 예언자들은 그들의 물질주의와 노예 매매 등에 대해 호되게 비난했습니다(욥35:1; 약1:9).

제목: 두로를 위해 여호와께서 정하신 일 성경: 이사야 23:8, 9 찬송: 310

하나님께서서는 두로로 하여금 모든 영광의 교만을 욕되게 하시며 모든 존귀한 자로 멸시를 받게 하려 하셨습니다. 즉 무엇보다도 경제력으

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교만했던 두로에 대한 심판이 이미 작정되었던 것입니다. 세상물질에 눈이 어두워 하나님을 멀리하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으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백성은 복이 있음을 기억해야 하셨습니다(시146:5).

제목: 여호와 앞에 거하는 자 성경: 이사야 23:18 찬송: 338

이는 유대 민족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것은 두로의 무역한 것과 그 이익은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림으로 유대 민족이 먹고 입을 재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종말의 날에는 열방이 그의 예물을 시온으로 가져오므로 제사장 족속인 유대 사람들은 그 예물로 생활하게 됩니다.

제목: 더럽게 되는 땅 성경: 이사야 24:7 찬송: 305

땅이 더럽게 되는 것은, 거만이 율법을 범하고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파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죄는 사람 뿐만 아니라 그가 살고 있는 이 세계까지 부패시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물질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라, 물질로 인한 사람의 죄악 때문에 악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메시아의 재림으로 땅은 새롭게 회복될 것입니다(계21:1).

제목: 슬퍼하는 새 포도즙 성경: 이사야 24:7 찬송: 367

새 포도즙이 슬퍼한다는 말은 메마른 땅 위에서 모든 포도 열매의즙이 말라버렸다는 뜻입니다. 남방 사람들에게 있어서 포도주는 기쁨과 향락과 관계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포도즙이 말랐다는 것은 기쁨이 끝났으며 파국이 임했음을 의미합니다.

제목: 의로우신 자 성경: 이사야 24:16 찬송: 301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때때로 묵시 문학에서 '의인'이란 사람의 아들 곧 메시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의로우신 자란 종말의 날에 모든 성도들이 찬양하고 영광 돌릴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제목: 여러 날 후의 의미 성경: 이사야 24:22 찬송: 279

악한 영의 세력과 그의 하수인인 땅의 왕들이 갇힌 후라는 뜻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메시아께서 사단을 결박하여 그를 천 년 동안 무저갱에 가두신다고 예언했습니다(계30:3, 7). 그리하여 천년 동안 갇혔던 사단은 후에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받아 영원히 멸망받을 것입니다.

제목: 외인의 환화 성경: 이사야 25:5, 6 찬송: 253

이는 이방 사람들의 소동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말은 '포화한 자의 노래'와 더불어 난폭한 사람들이 부르는 오만한 노래 혹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의 비신앙적인 노래를 의미합니다. 이방 성도들이 시온 산으로 순례하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더불어 함께 식사하실 것이며, 이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

는 말입니다. 그리고 종말론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서 베풀어질 천국 잔치를 가리킵니다. 천국 잔치의 주재자는 하나님이시며 초청의 대상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입니다. 이 잔치의 특징은 음식이 풍부하여 아무리 많은 손님이 와도 부족함이 없으며, 사망의 공포가 영원히 없는 영생 잔치이며 위도가 충만한 잔치입니다. 이 잔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끝까지 인내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사랑의클리닉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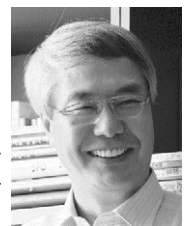
좋은 스트레스! 나쁜 스트레스!

스트레스에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건강을 해치는 스트레스요, 다른 하나는 건강에 유익한 스트레스이다. 일반적으로 "스트레스"라고 하면 "나쁜 스트레스"를 떠올리게 되나 스트레스의 정체는 그리 단순하지 않다. 스트레스를 "있어서는 안 될 대상"으로만 여기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도 하나의 스트레스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모든 것이 일반이라"(전9:2)는 성경말씀처럼 그리스천이라고 해서 세상사람이 당하는 스트레스에 직면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오히려 더 많은 스트레스를 감내하고 있는 그리스천이 많다.

문제는 스트레스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에 대한 인간의 반응과 태도에 있다. 어떤 꿈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이루기 위한 약간의 희생을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 탐험가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결혼은 큰 스트레스 중의 하나이지만 결혼을 앞둔 연인들은 마냥 즐겁기만 하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말씀대로 사는 그리스천은 세상사람이 평생 직면하고 있는 근원적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운 사람이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리스천은 죄, 불의, 두려움, 미움, 음행, 방탕등 나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야 한다. 이는 십자가를 통하여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부과하신 "좋은 스트레스"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때만이 가능하다. 예수님이 주신 스트레스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최고의 목표에 직결되므로 스트레스를 감당하는 과정에서 인생 최대의 성취감을 맛볼 수 있다. 이 스트레스는 또한 무기력한 삶의 활력소가 되기도하고 중대한 일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추진력이 되기도 한다. 예수님의 명에는

황성주 박사
사랑의 클리닉 원장



쉽고 짐은 가볍다는 말씀은 이런 의미에서 진리일 수밖에 없다.

인간에게는 적당한 스트레스가 필요하다. 나뭇배는 바닷물이 있어야 균형을 유지한다. 트럭은 알맞은 적재량이 있을 때 제대로 스피드를 낼 수 있다. 인간은 감당할 수 있는 적당한 긴장이 유지되어야 몸이 민첩해지고 신진대사가 원활해진다. 무제한의 자유와 방종과 무사안일은 인간을 타락시킨다. 이런 의미에서 죄성을 가진 연약한 인간에게는 좋은 스트레스가 반드시 필요하다. 상황에 따라서는 그리스천의 내적 성숙을 위하여 스트레스는 필수불가결한 존재가 된다. 다만 사람에게 따라 어떤 종류의, 어떤 강도의 스트레스가 필요한지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며, 스트레스의 기간까지도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스트레스만을 주신다. 고전 10:13을 보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조와 생리를 속속들이 알고 계시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 개개인의 강점과 취약점을 모두 파악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철저히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새해에는 스트레스를 없애달라고 간구하기 보다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하는 그리스천이 되자!



담임 소진우 목사
PASTOR SO JIN WOO
H·P : 010-8753-7179
교회 : (02) 934-1232(대)

- 열방부흥선교협의회 총재
- 극동방송 칼럼리스트
- CBS TV 칼럼리스트
- 지저스타임즈 사장
- JTN TV, 신문 칼럼리스트

늘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교회와 동역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6년 12월

4-7 주님의교회(오영석 목사)
12-15 천보산기도원(우정제 원장)
18-24 겨울부흥성회(예복교회)
26-30 온사랑교회(최태석 목사)

2017년 1월

2-4 가창성결교회(김성철 목사)
9-12 실목교회(조원익 목사)
16-18 풍기교회(백현기 목사)
23-28 (인도선교)
30-2 광은기도원(김한배 원장)

2017년 2월

3 한얼산기도원(이영금 원장)
6-9 김람산기도원(이목란 원장)
13-17 선교지세미나
20-22 초대충안교회(김복신 목사)
27-1 중동교회(서종표 목사)

2017년 3월

6-10 필리핀 예복교회 한당예배 및 선교지 방문
봄철 축복 대 심방기간

2017년 4월

3-5 홍주교회(고영석 목사)
6 오산리금식기도원(김경환 원장)
9 천보산기도원(우정제 원장)
10-13 오정성화교회(이주형 목사)
17-18 정기노회
18-20 안배교회(정진수 목사)
24-27 천보산기도원(우정제 원장)

2017년 5월

7 천보산기도원(우정제 원장)
8-12 네팔선교지 방문
15-17 주영광교회(지재문 목사)
21-24 사랑의빛교회(오영민 목사)
29-31 초대교회(문호준 목사)

2017년 6월

4 천보산기도원(우정제 원장)
4-8 빛과소금교회(송영만 목사)
12-16 선교지사역세미나
18-30 본교회 2주연속심야대성회

2017년 7월

2 천보산기도원(우정제 원장)
3-6 관선수양관(방만석 원장)
10-12 사랑의교회(고정욱 목사)
17-19 모리아교회(조순의 목사)
24-28 선교지신화생여름세미나
30 천보산기도원(우정제 원장)

2017년 8월

3 안양갈멜산기도원(임예제 원장)
7-10 임마누엘수양관(이수영 원장)
11 한얼산기도원(이영금 원장)
14-17 광은기도원(김한배 원장)
21-24 김람산기도원(이목란 원장)
27 천보산기도원(우정제 원장)
28-31 천문기도원(최정숙 원장)

2017년 9월

4-8 은누리복음화협의회 수련회(임기호 총재)
11-14 교단총회
18-21 풍기교회(백현기 목사)
24 천보산기도원(우정제 원장)
25-27 비전교회(김경환 목사)

2017년 10월

2-5 추석주간
9-10 정기노회
16-18 주사랑교회(조연오 목사)
22 천보산기도원(우정제 원장)
30-4 인도사역지 방문주간

2017년 11월

5-8 주안중앙교회(박응순 목사)
13-15 동계부흥성회(예복교회)
19 천보산기도원(우정제 원장)
20-22 열린종교교회(신동홍 목사)
27-1 필리핀 사역자 컨퍼런스

2017년 12월

4-6 살로교회(고정익)
11-14 천보산기도원(우정제 원장)
18-21 과천예복교회(노영수 목사)
26-29 송구영성회 위한 산상기도

2018년 1월

1-3 안평지역연합성회(황창홍 총회장 목사)
8-10 삼대교회(황인옥 목사)
14 은천교회(소지영 목사)
14 천보산기도원(우정제 원장)
15-18 배방중앙침례교회(임병만)
21-24 안양성문교회(문노원 목사)
29-1 광은기도원(김한배 원장)

2018년 2월

5-8 김람산기도원(이목란 원장)
11 천보산기도원(우정제 원장)
12-17 설 주간
19-21 점촌교회(김위수 목사)
26-28 실목교회(조원익 목사)

2018년 3월

1일 안양갈멜산기도원(임예제 원장)
4일 천보산기도원(우정제 원장)

3월은 봄철 축복 대 심방의 달

2018년 4월

1일 천보산기도원(우정제 원장)
2일-4일 공평성결교회(조재웅 목사)
9일-11일 산돌교회(한상길 목사)
16일-26일 예복교회부흥회(소진우 목사)
29일-5월 3일 천보산기도원(우정제 원장)

2018년 5월

31-3 천보산기도원(우정제 원장)
4 안양갈멜산기도원(임예제 원장)
7-10 진주기도원(김진홍 원장)
14 오산리금식기도원(김경환 원장)
16-24 미주지역 부흥회
27 천보산기도원(우정제 원장)

6월 7일은 안식일

2018년 8월

3 한얼산기도원(이영금 원장)
6-8 설화산기도원(노베드로 원장)
9-10 행복으로 가는교회(최석규 목사)
13-16 광은기도원(김한배 원장)
19 천보산기도원(우정제 원장)
20-23 김람산기도원(이목란 원장)
27-30 천문기도원(최정숙 원장)

2018년 9월

2-5 윤정사리교회(홍성근 목사)
10-13 교단총회
13 평화의 동산(피종진 목사)
16 천보산기도원(우정제 원장)
17-20 연대연합교회(박승현 목사)
24-28 선교연합집회

2018년 10월

1-4 다니엘교회(김명수 목사)
8-10 목심교회(유종수 목사)
12 오산리금식기도원(김경환 원장)
14 천보산기도원(우정제 원장)
15-17 정기노회
18-19 성소기도원(박정원 원장)
21-25 은천교회(소지영 목사)
26 양평금기도원
29-2 선교연합집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복교회

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누원로40 (장암동)

새에덴교회 설립 30주년 기념음악회 성황

테너 임웅균 교수 등 수준 높은 노래로 2600 관객객들의 큰 환호 받아

새에덴교회(담임목사 소강석) 설립 30주년을 기념하는 “The New Vision Concert”가 지난 9월 29일



오후 3시 콘서트 전석이 매진되는 초유의 역사가 나타난 가운데 각계 인사들과 내외빈 2600여명이 배석했으며,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은 막이 올랐다. 이날 공연은 새에덴교회가 걸어온 부흥과 사명의 이야기를 25곡에 스토리로 구성하여 담아내어 다른 음악회와는 차별된 것은 물론, 교회 역사를 음악을 통해 나누는 이색적인 공연으로 기록되었다.

이날 콘서트에는 예술총감독의 테너 임웅균 교수(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를 비롯해 지휘자 홍성택·류형길, 이탈리아 소프라노 콘체타 페레레(Concetta Perere), 소프라노 김은경·백아현, 메조소프라노 강혜인, 테너 박주옥·진성원·김준모, 바리톤 오동규, 베이스스트 성민재, 색소포니스트 안드레 황, 바이올리니스트 김연정 등 최정상의 음악가들이 출연해, 약 2시간이 넘는 시간동안 새에덴교회 설립 30주년을 축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했다. 연주는 수원시립교향악단과 KNUA브라스앙상블이 맡았다.

이날 이승희 총회장(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을 비롯하여, 문희상 국회의장, 김진표 국회조찬기도회장(국회의원) 등이 영상으로 축사를 전해왔다. 이날 총회장 이승희 목사, 문희상 국회의장이 축사했다.

소강석 목사는 환영사에서 “새에덴교회의 30년은 은혜와 성령의 역사였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부축하심이 없었다면 단 한 걸음도 걸을 수 없었던 여정이었다”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국내외의 최정상급 지휘자와 오케스트라, 연주자들을 모시고 음악회를 열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음악회가 사랑과 은혜의 시가 되어 여러분의 가슴에 아름다운 감동의 파문을 일으킬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공연의 시작은 성가곡 ‘내 주는 강한 성이여’(루터 곡)를 40인조의 브라스 밴드가 힘차게 연주함으로 광파례를 올렸고 테너 진성원은 ‘Cuius animam’(탄식하는 어머니)’를 통해서 예수 믿고 집에서 쫓겨나 매맞고 추운 세월에 보냈던 소강석 목사가 바리톤 십자가의 탄식을 노래했다. 또한 테너 임웅균 교수는 화려한 무대 매너와 포효



하는 듯한 독창적인 창법으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노래하며 찬송과 찬송이 지나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함으로 새에덴교회의 앞으로의 30년, 60년, 100년을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온 성도가 함께 걸어가는 합창 발걸음을 표현했으며, 특히 새에덴교회 개척 30년을 섬겨온 소강석 담임목사의 경우 마틴 루터 킹 국제평화상과 대한민국 국민훈장, 캄보디아 국왕 훈장을 수여받았으며, 한국교회 생태계 보호와 회복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 새에덴교회 30년의 위대한 부흥과 사명과 섬김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 눈물의 고백들이 음악으로 연출되었으며 이를 통해 무지개 너머 새롭게 펼쳐질 New Vision을 꿈꾸는 시간이었다며 막을 내렸다.

이날 공연의 하이라이트는 전 출연자가 나와 소강석 목사가 작사 작곡한 ‘함께 걸어요’와 ‘Glory Glory Hallelujah’가 리믹스된 새롭게 편곡한 버전을 합창함으로 새에덴교회의 앞으로의 30년, 60년, 100년을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온 성도가 함께 걸어가는 합창 발걸음을 표현했으며, 특히 새에덴교회 개척 30년을 섬겨온 소강석 담임목사의 경우 마틴 루터 킹 국제평화상과 대한민국 국민훈장, 캄보디아 국왕 훈장을 수여받았으며, 한국교회 생태계 보호와 회복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 새에덴교회 30년의 위대한 부흥과 사명과 섬김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 눈물의 고백들이 음악으로 연출되었으며 이를 통해 무지개 너머 새롭게 펼쳐질 New Vision을 꿈꾸는 시간이었다며 막을 내렸다.

이날 공연의 하이라이트는 전 출연자가 나와 소강석 목사가 작

배정희 목사 한교협 제2대 총재 취임



한국교회 부흥협의회(대표회장 황규례 목사)는 지난 8일 오전 11시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2동 믿음

의교회 예배당에서 배정희 목사를 제2대 총재로 추대하고 취임예배를 드렸다.

이명철 목사(행복한교회)의 인도로 예배가 시작되어 최건숙 목사(백합중앙교회)가 기도, 인도자가 성경(딤후 3:1~7절)봉독하고 색소폰 연주로 도루디아 목사, 박장선 목사 등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 후 한교협 대표회장 황규례 목사는 “감동의 자격”이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황 대표회장은 총재로 취임한 배정희 목사는 하나님의 섭리가운데 충분한 자격이 갖추어진 덕망 있는 목회자로서 총재로 추대했다면서 헌신한 여인은 믿음이 강하고 확고하고 도덕적으로 덕망이 있고, 심지가 곧고 능력과 재능이 탁월했듯이 한교협 제2대 총재도 여성인 만큼 더욱 기대가 된다고 했다. 앞으로 한교협은 한국교회를 부흥시키고 복한을 안고 세계선교를 목표로 삼고



있어 이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총재가 되어 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유한나 목사(찬양위원장 찬양교회)가 봉헌찬양을, 박장선 목사의 색소폰 연주로 헌금의 시간을 갖고, 한규례 대표회장은 신임총재 배정희 목사에게 취임패를 전하고, 사회 이명철 목사는 취임자의 약력을 소개하고, 배정희 신임총재는 대표회장 황규례 목사에게 협회의 발전기금을 전달했다. 배 신임총재는 “말려진 사역에 열심을 다해 한교협을 사랑하고 봉사하면서 잘 섬길 것을 다짐하며 축사”했다.

아울러 직전 총재 하귀호 목사에게 선물을 전달한 후 제1대 총재 하귀호 목사(만민중앙교회), 박진수 목사(현명예총재 은혜교회)

가 축사를, 광영민 목사(국제예능 부흥사회 대표회장)의 격려사가 있은 후 지도고문 영광교회 송태평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한국교회부흥협의회 제2대 총재 배정희 목사의 약력

1992년 5월 15일 교회설립, 93년 12월 6일 중앙총회 신학대학 졸업, 94년 10월 4일 전도사 임명, 95년 12월 4일 중앙총회 신학대학원 졸업, 96년 2월 24일 목사 안수, 02년 6월 27일 중앙신학대학원대학교졸업 Thm, 10년 6월 15일 미국 코헨 신학교졸업(목회학 박사), 14년 7월 26일 예능부흥신학, 연구원 이사장 취임, 18년 현재 중앙총회 동구노회 노회장, 현재 인천시 남구 주안2동 소재 믿음교회 담임

사도영성신학원 가을학기 개강예배 드려

예수그리스도의 삶을 따르던 사도들의 영성

예장 호헌총회, 신임 총회장 도용호 목사 선출

호헌총회의 위상확립과 교단 정체성 회복의 원년으로 각오 다져

예장 호헌 제 103회 정기총회가 17일(월) 의정부 소망교회에서 열려 신임 총회장으로 도용호 목사, 부총회장 김성수 목사, 구한나 목사 오상도 장로 등 신임임원선출을 비롯한 각종 안건을 처리했다.

제1부 개회예배에 부총회장 여정택 목사의 인도로 부총회장 김종천 장로의 호헌선언문 낭독, 전 북노회장 오갑수 목사의 기도, 총회장 도용호 목사는 막 9:18~24을



인용 ‘성장 발전하는 교단’이란 제하의 말씀을 전했다. 도 총회장은 “총회는 오직 말씀 중심,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여 이단 사이버종파를 배척하고 정체성을 회복하여 성장 발전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했다. 이어 부총회장 여정택 목사의 광고, 경증총회장 안봉웅 목사가 축도했다.

제2부 성찬식이 거행되고 3부 회무처리에 들어가 임원선거에서 도용호 목사가 총회장에 선출되었

다. 총회장 목사는 “하나님 말씀 중심의 총회, 정체성을 회복하는 총회, 특히 교단의 내실을 기하는데 주력하고, 이단사이비 세력을 배척하고 동성애자를 용납하지 않으며 양적과 질적으로 성장 발전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내외는 물론 교단과 교회 성장시대를 열어 금년을 호헌총회의 위상확립과 교단의 정체성회복의 원년으로 삼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제103회기 임원진은 다음과 같다.

▲ 총회장 도용호 목사, ▲ 부총회장 김성수 목사, 구한나 목사, 오상도 장로, ▲ 서기 우광욱 목사, 부서기 최한석 목사 ▲ 회의록서기 오종만 목사, 부회의록서기 박진희 목사 ▲ 회계 정은주 목사, 부회계 정영은 목사 ▲ 감사 김명희 목사, 감종천 장로 ▲ 총무 오갑수 목사

학장 홍향표 목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 성경을 기록한 사도들의 영성으로 재림을 갈망하는 신령을 갖고 지난 10월 2일(화) 오후 6시30분-9시50분까지 개강예배와 강의가 서울시 구로구 개봉로 1나길 1, 사랑의교회 본당에서 진행되었다.

학장 홍향표 목사의 인도로 개강예배가 시작되어 기도예 성상도 목사(제66사단(햇빛)교회담임), 성경봉독(약 2:1~8)을, 에스라설교 연구원장 조봉삼 목사는 “야고보의 영성”이란 제하의 말씀을 선포했다.

이날 조봉삼 목사는 “사도영성 아카데미 학장 홍향표 목사의 영성회복운동중요성에 대해 높이 평가하면서 첫째로 실천하는 야고보의 영성”에 대해서 두 번째는 “야



고보의 영성은 말씀으로 순종의 영성이 회복”되기를 원했다. 세 번째는 “이웃 사랑의 영성인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랑 실천의 회복운동이 역사”가 있기를 설교했다.

이어 한국경목총회 경증회장 허식 목사의 축사와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이날 조봉삼 목사의 설교 및 허식 목사의 축사의 말씀이 지저스타임즈 인터넷방송(http://cpj.kr)에서 학장 홍향표 목사의 첫 강의 내용을 자세히 가감 없이 동영상상을 통해 시청할 수 있다.

한편 사도영성 아카데미 초대교회로 돌아가 성경을 기록한 사도들의 영성으로 재림을 갈망하는 주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던 사도들의 영성에 대해 1부 이론과 2부 실제, 3부 성경적조직신학 12과목을 전제로 첫 강의가 10월 2일(화) 시작되어 4일(목), 9일(화), 11일(목)까지 강의 시간은 오후 6시30~9시50까지 진행되고 있다.

사도영성 아카데미 초대교회로 돌아가 성경을 기록한 사도들의 영성으로 재림을 갈망하자!

학 장



홍향표 박사

사도영성 성경적 조직신학 12과목 · 요한계시록 ·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사도영성 신학

강 사



홍성의 목사

강 사



임요한 목사

강 사



박경혜 교수

강 사



우슬초 목사

강 사



양미상 목사

강 사



이수학 선교사

강 사



임용환 선교사

강 사



이춘우 선교사

강 사



김동현 선교사

예수그리스도의 삶을 따르던 사도들의 영성 : 1부 이론과 2부 실제, 3부 : 성경적조직신학 12과목

1. 서론 (성경적 조직신학, 사도론이란)
2. 신론(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3. 인죄론(인간과 죄악이란?)
4. 기록론(예수그리스도의 속죄론에 대하여)

5. 성령(생명)론 (성령과 생명에 대하여)
6. 성경론 (성경의 맥에 대하여)
7. 믿음론(사도)거룩한 성도들의 삶)
8. 구원론(구원의 성화에 대하여)
9. 교회론(교회시대 이긴자들에 대하여)

10. 성례전(십자가의 도, 성례와 성찬)
 11. 종말론(말세에 대하여)
 12. 대세론(영원한 세계에 대하여)
- ❖ 요한계시록 강해

- 일 시 : 10월2일(화),4일(목), 10일(수) 11일(목)(매일오후6:30-9:50)
- 장 소 : 우측 하단, 주소 교통편 참고
- 참가비 : 1일 1만원(교제 및 나그네 정식 식사제공)
- 주 최 : 사도영성신학원
- 문 의 : 010-7585-1955(학장)
- ❖참석하시는 분들에게 강의 PPT제공...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로 1나길1. (사랑의교회/사도영성신학원)

☎ 1호선 개봉역-남부광장 04번 버스승차-한진A하차 후문 바로 앞 ❖